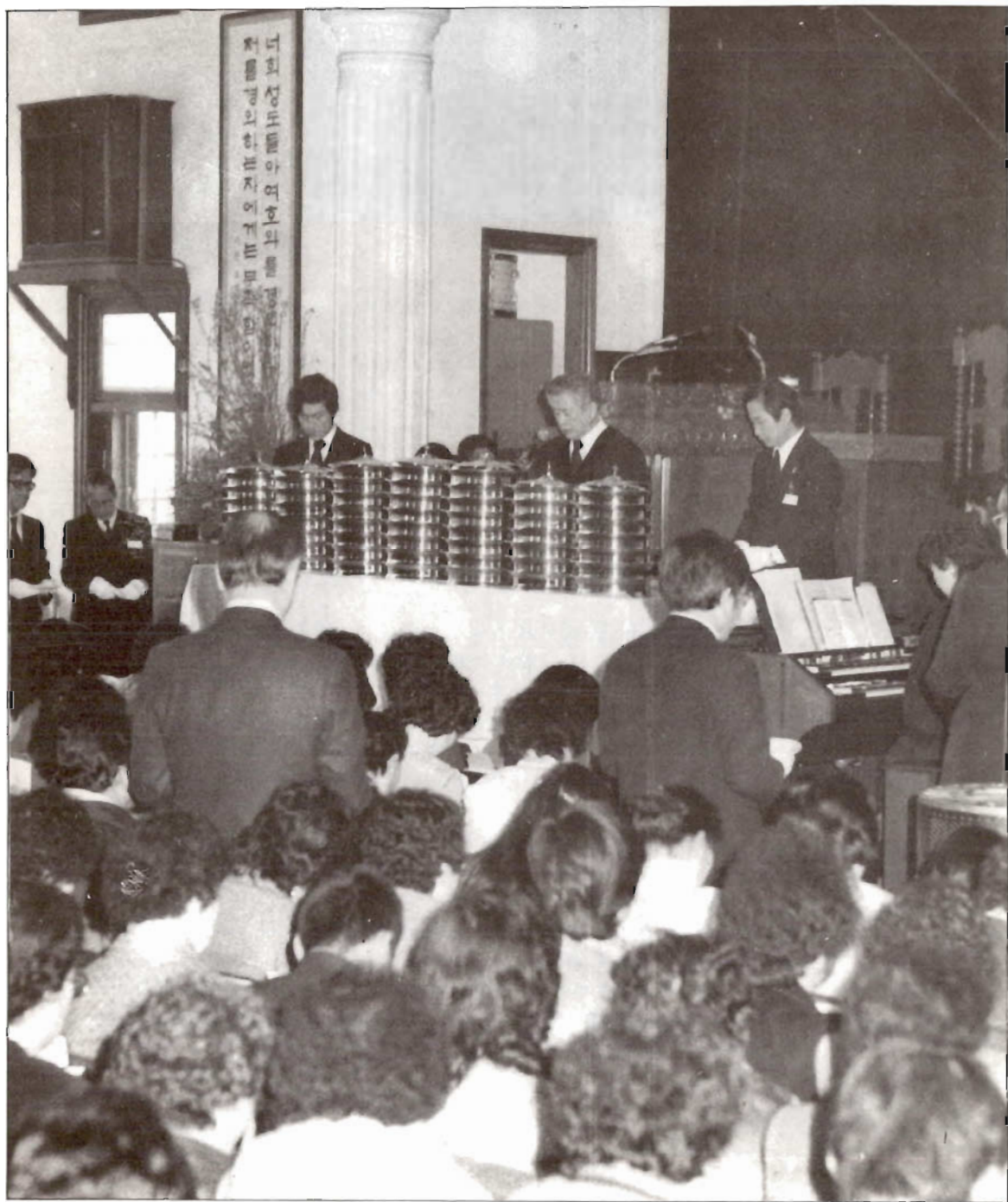


월간 증 현

The Monthly Chung Hyeon

'82 1 월호



새해 새 출발

'82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과 기대가 점철된 승리의 한 해가 될 것을 우리 모두가 기원한다.
당회장 김창인목사는 새해 성구로 시편 1백 18편을 제시했고 찬송은 110장을 선택하여 1년간 부르도록 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 하심이 영원함이라 ... 여호와와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와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82년을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이었다.

또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우리에게 항상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찬송에서 나타난 것 처럼, 마귀의 장난, 사탄의 시험은 계속 우리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친구가 나를 버릴 수 있다. 가족이 나를 외면할 수 있겠다. 사회가 신자의 생활을 간섭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종교활동에 비협조적인 때도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다.

골고다에 선 십자가가 이를 입증했고, 지금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섭리와 경륜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보호와 인도함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과 결단으로 임해야 겠다.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주님의 천국을 이룩하는 생활에 힘쓰고, 주님께 몸과 마음 정성을 바치는 금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목표를 향해 땀 흘리는 주자는 첫 출발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한다. 남보다 뒤늦게 출발했을 때, 끝인 지점에서의 결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앞만 보고 달려야지 결단하며 뛰다가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실격하고 만다.

이런 실수가 없도록 금년에는 정신을 가다듬고 신앙훈련 및 믿음 생활에 매진해야 겠다.

우리 교회로써는 새 성전 건축이 완료되어 입당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해외선교의 확장과 국내전도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늘 감사하며, 여호와와 오른손의 권능에 힘입어 주를 높이는 금년이 되길 기도한다.

五大目標

天國일군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 1982년도 교회성구 *

〈시편 118편〉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찌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와 내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고 여호와께서 내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시기를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 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와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와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찌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와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18편 중에서〉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전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0권 제1호 · 통권 95호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1982년 1월호 차례

권두언 / 새해 새 출발	손경주 · 2
신년설교 / 용년을 모르는 성도	김장인 · 4

* 1982년을 앞에 놓고 *

〈새해의 아침에〉	
·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참된 편지로 한 해를 살아가자	조현명 · 6
〈새해를 맞으며 새날을 위한 기도〉	
·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김의철 · 8
· 한국교회와 교제를 위하여	윤용규 · 8
· 충현교회를 위하여	송순일 · 9
〈새해 새 설계〉	
· 교육위원회 / 새성전 이주를 생각하며	편집실 · 10
· 전도위원회 / 방송 · 문서전도 확대	편집실 · 10
· 심방위원회 / 대심방 - 봄에 모두 마쳐	편집실 · 11
· 건축위원회 / 금년에 새성전에서 예배를	편집실 · 11
〈새해 새 소망〉	
· 저 높은 곳을 향해	김광신 · 12
· 늘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은주 · 12
· 소외된 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장철환 · 13
· 사랑이 넘치는 생활이 늘	송순희 · 13

● 지상특강 ●

지분자의 임무와 역할	배준조 · 14
편집실칼럼 /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오태욱 · 18
찬송가감상 /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새30장〉	김하진 · 19
책 소개 / 구약신학 논문집(2)	성주진 · 19
물 맺 돌 / 왜 말씀이 즐겁지 못하나?	편집실 · 18
에 베 에 셀 / 미움 해결책	이건숙 · 23
정월의 시 / 기도 · IV	엄정심 · 25

〈경건하고 건전한 가정을 위한 특별기획 ①〉	
그리스도인 가정의 경건생활	배도선 · 20
〈김창인목사의 주기도문 강해 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김장인 · 24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⑬〉	
칼빈주의 구원관(II)	김하진 · 26

● 1982년도 선교주일 ●

기관 소개 / 주일학교 선교부	편집실 · 36
해외선교지 현황과 전망	김영희 · 28
선교사 · 선교지조직	39
1982년 무엇이 달라졌나?	40
12월 중 교우동정	38
편지하고 나서	46
표지설명 / 주님의 몸과 살을 기념하라는 명령에 따라 교회는 매년 몸 · 가을 성례식을 베풀었다. 금년부터 교회는 1년에 4차례 성례식을 베풀기로 했다. 그 첫번째 1월 24일에 있었던 성찬식, 모두 회개, 감사, 헌신의 마음으로 새로운 1년을 다짐했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홍년을 모르는 성도

〈창 26 : 12-25〉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받기를 원하는 말 씀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영육간에 윤택한 부자가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년을 모르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자면 괴로운 일이 많은데 그중엔 가난과 질병과 자 유가 없는 감옥의 괴로움이 가장 클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생 의 홍년입니다.

그러면 왜 가난의 홍년이 오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자연적 홍년이 들면 가난이 옵니다. 벼가 익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 가난하게 됩니다.

둘째로, 전쟁이 일어나면 가난이 옵니다. 아무리 풍년이 되어 곡 식을 쌓아놓아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두 불질러 버리거나 착취 당하게 될 것이며 먹여가는 곡식이라도 다 밟히우게 되어 가난하게 됩니다.

세째로, 죄 범하면 하나님 징계하시어 가난이 옵니다. 인간이 아 무리 아끼고 좋은 것을 태산같이 쌓아두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산 '후' 불어버리십니다. 자취도 없이 없어져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러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려서 고아가 되어 숙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어 큰 부자가 될 때 롯 도 덩달아 부자가 되어 많은 재물과 하인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자주 싸움을 하자 아브라함은 롯 을 분가시켰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롯은 모두가 숙부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남방 옥야천리를 먼저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도 시 소돔 고모라가 더 살기 좋은 줄 알고 그곳에서 살았는데 전쟁으 로 인하여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출해 주었으나 다시 소 돔 고모라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을 멸하시려고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실 때 롯은 두 딸과 함께 겨우 몸만 빠져나 와 영육간에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떠나 최악 가운데 머 무를 때 우리는 홍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지방에 홍년이 들자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섬기는 모압 땅으로 떠난 나옴이는 10년도 못되어 남편과 아들 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자부 롯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으나 하 나님을 믿고 그의 시어머니 나옴이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와 하 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빈 손으로 고향에 돌아왔으나 영육이 풍년 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평생에 홍년을 모르고 살아 온 것을 함께 살펴봅시다.

이삭이 살 때에는 홍년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26장 1 절을 보 면 '아브라함 때에 첫 홍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홍년이 들매' 큰 홍년이 들었습니다. 모두 다 굶게 되었고 불안과 공포가 싸여 이삭 은 애굽으로 떠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떠나 지 말고 지시해 주신 땅에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홍으로 메웠더라.”

〈창 26 : 12~15〉

께서 지시한 그랄 땅에 거하여 거기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 추수가 백배나 이루어졌습니다. 시기한 그 땅의 사람들이 이삭이 일구어 놓은 땅과 파 놓은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새로 지은 이삭의 농사는 풍년이며 새로 판 우물은 물이 솟았습니다. 이것을 본 그랄 왕 아비닐렉은 이삭과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삭에게 화물을 청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당을 지어야 하고 복한선교를 해야 하고 민족복음화 운동도 더 계속해야 하고 세계선교도 더 해야 하겠는데 이렇게 크고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살피본 이삭이 어떻게 흉년을 모르고 그 큰 부자가 되었는지 살펴보시다.

첫째,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한끼 먹는 것이 마귀와 열끼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품 안에 주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흉년을 만나도 애굽으로, 소돔 고모라로, 모압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하나님 명령하신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남들은 흉년이 들고 이삭은 농사짓는 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 명령하신대로 농사지으니 백배 결실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한 사업이라도 선한 일 목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공을 주십니다.

세째, 사람과 싸우지 아니했습니다.

자기가 농사지은 땅과 우물을 빼앗겨도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인격에 손해보아도 하나님 사랑 받아야 하고 물질에 손해보아도 사람과 원수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돈에 손해를 보았습니까? 그 사람 성공하여 여러분의 손해 갸고도 남음이 있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해줍시다.

네째,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에도 빈 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다섯째, 이삭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형편들 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 그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드리려 할 때에도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 할 일이 너무 많은 이때에 우리도 이삭과 같이 흉년을 모르고 풍년만 맞이하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삽시다. 하나님 지시하신 일, 뼈가 아프도록 열심히 일하고 사람과 싸우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없으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이렇게 하여 종현의 모든 성도님들은 흉년을 모르는, 영육간에 풍년만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창 인 목사

(본 교회 당회장)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참된 편지로 한 해를 살아가자



조 현 명 장로

(별간중현 편집위원장)

보통 편지(便紙·片紙, letter)란 어떤 볼 일로 자기의 의사를 남에게 전하기 위하여 써 보내는 글을 말하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내포하고 있는 넓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서신(書信, epistle)을 가리키는 때도 있다. 편지를 글월, 서간(書簡), 서신, 서찰(書札), 신서(信書), 찰한(札翰), 서장(書狀), 서함(書函), 서자(書字), 찰한(札翰), 안서(雁書), 안신(雁信)이라고도 한다.

구약시대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왕국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다만 말로 전하였을뿐 편지라는 것이 없었다.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문자로 쓰인 편지는 다윗이 장수 우리아(Uriah)에게 보낸 죄 깊은 편지이다(삼하 11:14). 우리아는 헛 사람으로 다윗 휘하에 있던 군대장으로 용감한 명성 높았던 군인으로 다윗이 저를 전장에 보내어 죽게 한 다음 그의 아내 밋세바(Bathsheba)를 빼앗았다. 구약성경에는 이 밖에도 편지의 수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에 의하여 설립된 중학교를 다녔다. 내가 졸업 후 모교(母校)는 1935년 이후 일정(日政)이 강요하는 신사 참배(神社參拜)를 거부한 저항 운동으로 끝내 폐문(廢門)이라는 비운(悲運)까지도 겪었고 지금은 본래의 터전을 적도(赤從)들에게 빼앗겨 모교의 뼈아픔이 온 겨레의 뼈아픔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온 겨레의 극복 속에서 고지(故地)에서 모교의 귀환 축전(歸還祝典)이 베풀어질 날이 오기를 기원하고 있다. 그 당시 장로교인의 가정에서는 공립학교는 물론 타교파의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므로 급우(級友)들의 대부분이 전국 각지방에서 온 믿는 가정의 자제들이었으며 지방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도 갖추어져 있었다.

나는 자기 집에서 통학하는 친구들과도 친했지만 기숙사에 들어 있는 함복 성진 출신의 P군과 특히 친하게 지내었다. 그 후 기숙사에 들어가 동급생인 황해도 신천 출신인 K군과도 사이좋게 지낸 바 있었다. 하루는 난데없이 편지 한통이 집으로 날아들었다. 매일 만나던 P군으로부터가 아닌가! 편지 내용 속에 '삼각 관계'란 말이 써 있어 내 마음은 울렁거렸다. 삼각관계란 세 남녀 사이의 연애 관계에만 사용되는 말인 줄 알고 있던 당시 반에서 키가 제일 작고 나이 어린 내 마음을 상하게 해 주었다. 아마 P군은 내가 자기보다 K군과 가까이 하는 것 같아 섭섭한 생각이 들었음인지 모르겠으나, 좌우간 한 편 편지가 읽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한 편 이상의 편지를 써 본 기억이 있고 또 받아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신약성경은 4 복음서, 사도행전 및 요한 계시록을 빼고 나머지는 전

바울은 서신서에서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 편지로 되어있다. 이 편지들을 분류하면 개인에게 보낸 편지 6통, 지방 교회에 보낸 편지 10통, 일반 신자에게 보낸 편지 5통이나 되며 그 중 바울의 편지가 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교회들에게 정착시킨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의 신분을 완전히 새로운 낱말로써 교훈했으며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명명(命名)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 사도들에 의하여 배달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겼고 또 돌비에 쓴 것도 아니요 인간인 우리 마음 속 깊이 새겨진 것이라고 하였다. 편지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사상과 그리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좋은 매개체이다. 편지를 뜯어보면 그 속에서 편지 쓴 사람의 마음가짐과 정신상태까지 잘 알 수 있으므로 편지는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닌 그 이상의 깊은 의미와 효과를 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믿는 우리는 종이와 펜으로 엮어진 편지가 아니라 우

리의 심령 속에 알알이 적혀진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다. 인간의 손으로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구약에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돌비에 새겨져서 인간들에게 계명으로 전달되었다. 그러나 그 돌비에 적혀있던 하나님의 명령은 그토록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명령을 인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셨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무거운 책임을 주셨다. 그리고 분명한 이름을 주셨다. 곧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꼭 해야 할 조건들이 따르는 것이다.

책임이 따르는 편지

먼저 편지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 편지를 쓰는 사람의 기록한 그 사실만을 전달할 뿐 그 뜻을 조작하거나 가감할 수 없다. 편지는 쓰는 사람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목적 외에는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과 그 생애를 전도와 병자를 고치심과 십자가로 말미암은 속죄의 완성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 일하시다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리라는 것만을 말해주는 순수한 편지이어야 하겠다. 우리의 인격체 속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연이 스스로 미칠질 수 있도록 나타난다면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라 하겠다. 우리들은 믿지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메시지가 내몸 전체에서 윤회하는 무언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겠다. 만약 우리들이 믿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방해가 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절망을 안겨주어 물러가게 하는 일이 있다면 아직도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실로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이라 하겠다.

전달되어야 하는 편지

또 편지는 반드시 배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되어야 하며 이 편지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윤회하도록 만든다는 것도 그리스도의 편지인 나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의 책임이라 하겠다. 한번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고전 9:16)라고 고백을 했고 장막을 지어 스스로의 입을 출혈하며 전도 사업에 헌신했다. 우리들은 내몸 속에 스며든 복음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고 윤회될 수 있고 전달되어질 수 있는 편지로서 나의 나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다.

소중히 간직하는 편지

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를 소중히 간수하여야 하겠다. 몇 백년 묵은 편지가 발견되었다 해서 온 사람들이 기뻐하며 무척이나 그를 보화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일전 이조 고종(高宗) 때의 학부대신(學部大臣), 내무대신(內務大臣)을 역임한 박정양(朴定陽)이 고

종 24년(1888)에 미국 특파대사로 있을 때 고종에게 써 보낸 편지가 발견되었다. 그는 재래와 같이 한문으로도 쓰고 한글로도 썼기에 이것이 한글로 쓴 최초의 공한(公翰)이 된 것이다. 부부간의 애정을 왕래한 많은 편지에 표현하고 그것을 일생동안 보관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부부 싸움 후에 편지를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사람은 최후의 편지에 진실한 것과 진실이라고 믿는 것만 말한다'라고 J. 반베스는 말하였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소중하게 그것을 간수해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지체요(고전 6:15), 하나님의 성령의 거하는 성전으로서(고전 6:19) 깨끗이 간수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값주고 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여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는 결코 내몸을 내 기분 내키는대로 조작할 수 없다. 우리가 살아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편지가 되어야 하겠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사람이 알고 읽는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고후 3:2~3)

●●●● 새해를 맞으며

●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

기독교 문화예술이 꽃피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하나님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1982년은 일제의 죄사슬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국토가 분단된 지 37년째가 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선이 그어진지 29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백두산 소나무 찍어 예배당 지어 보는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951년 1·4 후퇴 때 잠깐 피했다가 국군과 UN군이 올라올 때 함께 오겠다던 월남동포들이 생각했던 그 잠깐의 시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덧 31년의 세월이 흘러 얼마나 많은 월남하신 동포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저 세상으로 가고, 늙고, 병들고, 그때 어머니의 등에 업혀 내려온 것 먹이도 벌써 30대가 되었나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함이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날 한국의 800만 성도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구속의 노래, 십자가의 노래, 기쁨의 노래, 영원한 노래, 승리의 노래를 배우며 부르고 있습니다.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속하사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그러나 내 민족 내 나라 대한민국을 놓고 무슨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할까요. 그 노래 가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물론 법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남한만이라

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 오늘날 800만 성도가 있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세대에 세계 선교의 장(章)을 연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하면 불평꾼이 되고 지나치게 감사만 하면 혹 비굴한 자가 되지는 않겠읍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한 진실한 기도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국토가 분단된 것과 이단 사고가 불 끊듯이 창궐하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사야 2 장 24절이나 미가서 4 장 3절에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

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평화와 전쟁이 없는 나라를 위해 공산주의를 막아내고 나라를 지키는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러나 창과 칼을 의지하는 힘의 철학은 복음의 나라를 대변할 수 없고 세계선교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겠나이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주의 종들이, 특히 평신도들이 주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기독교 문화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드디어 지난날 세계선교 역사가 그러했듯이 세계 선교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기독교 복음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 의 철 장로

● 한국교회와 교계를 위하여 ●

참 목자상이 정립되는 해가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일자와 연한을 두사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82년의 첫 문을 여시고 새해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웁니다.

'81년을 영원한 과거로 보내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 보니 말은 바 사랑과 은혜는 한없이 크옵는데 우리의 행한 것은 심히

부끄럽고 황송한 것 뿐이옵니다. 너무도 다사 다난하였던 한 해였기에 이 땅에 발 붙이고 사는 자마다 불안과 공포에 떨 수 밖에 없었사오니 긍휼을 베푸사 평안의 복을 주신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인 줄 아옵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웁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주의 성도들이 오늘의 교계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을 보

새 날을 위한 기도 ●●●

옵시고 진노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4 분 5 열되어 쪼개지고 갈라진 것 불쌍히 여기사 인간적 교권의 바벨탑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 이때에 이 땅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의 나라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계의 지도자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다른 교단을 원망하기 전에 교권을 내 세우기 전에 쓰러져가는 오늘의 교계를 위하여 뜨거운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들을 주시고 이

단종파와 자유주의, 신비주의와 적그리스도들이 굶주린 이리베처럼 성도들을 물어가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주의 백성을 보살피며 인도하는 목자상을 정립하는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들로 성장하는 복과 제사장 나라 되는 민족적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이 다 되도록 굳게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면서 힘있게 일하는 '82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한해가 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윤 용 규 장로

● 충천교회를 위하여 ●

말씀의 터위에 기도의 불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웁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충천 제단에서 말씀으로 은혜받으며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금년 1982년도에는 우리 자신과 경제불황만을 생각하며 살지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교회는 새 성전건축을 비롯한 여러가지 맡겨진 사명이 막중하므로 뜨거운 믿음과 기도없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줄 아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갓세 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고 승리하셨거든 하물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큰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겠읍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힘

으로 승리하는 이 한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까지 올라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교회는 천국 일꾼을 키우되 기도온 300명 용사와 같이 신령한 햇불과 나팔로 무장한 십자가 정병을 말씀과 기도로 키우게 하시고, 북한 선교를 하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그날의 기쁨을 생각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는 우리 민족이 세계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도로 전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계선교는 이미 우리들이 받은 복음의 빛을 사랑으로 포장하여 기도로 수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새 성전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장래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 주기 위한 거룩한 뜻을 가지고 기도로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기도의 불을 붙여 온통 기도의 불 바다를 이루어서 일취월장 부흥발전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도 영육이 강건하여지고 부요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 순 일 장로

새해 새 설계

새해를 맞으며 월간충현 편집실에서는 각 부서의 1년 계획과 지향점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심방, 전도, 교육의 3개 분야와 건축 분야를 생각하며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모두가 알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정리한 내용은 연초 수련회시 각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교육위원회 ●

새성전 이주를 생각하며

우리교회의 5대목표를 요약해 볼 때 전도와 교육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전도와 교육은 윤리관계와 같아서 전도를 위해 교육을 하게 되고 교육없이 전도할 수가 없게 된다.

그동안 우리교회의 교육은 대내외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평이나 있긴 하나 이제 새성전이주를 앞두고 생각해 볼 때 여러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정비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본다.

그래서 금년의 교육위원회의 표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교육위원회가 되자」로 내걸고 지금까지의 교육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해 나가려고 한다.

또한 충현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를 첫째 생원하는 신앙인, 둘째 교사자질향상, 셋째 교회교육

이념의 체계화, 넷째 새성전 이주를 위한 행정관리연구등을 1982년의 주교 교육목표로 삼았다.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신앙의 생활화」를 위해 각 부 주일학교에서 이에 맞는 목표와 실천사항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연구하며 교육해 나가야 겠고 「교사의 자질향상」문제는 무척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

또한 새성전 이주를 앞에 놓고 이에 따른 제반 준비와 이에 따른 충현교회 교육 이념등을 체계화하는 일들이 1982년에는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교육위원, 각부 지도자, 부장단, 교사들이 충현교회 교육에 대해 염려하는 가운데 한 마음으로 되어진다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한다.

● 전도위원회 ●

방송·문서전도 확대

1976년에 전도위원회가 발족한 후 이 모양 저모양으로 각 분과별로 해 온 일들이 점점 정리가 되고 정착되는 것 같다. 금년에는 그런 지금까지의 일들을 토대로 각 분야별로 계획을 해 보았다.

전도위원회의 전도계획은 크게 ① 교회부흥을 위한 내적전도 ② 민족복음화의 차원에서 본 내지전도 ③ 북한선교 ④ 해외선교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도위원장 / 장 정 일 목사

해외선교는 별도 해외복음선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특별히 금년에는 선교 대학원 설립에 관한 건을 연구과제로 놓고 있다.

북한선교는 지난해와 같이 차량전도를 통해 북한선교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북한선교회 회원을 모집하고 또한 전도대 특별훈련을 통하여 특별 전도인을 양성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

민족복음화 차원에서 하는 내지전도는 방송 및 문서를 통해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것이다. 이미 방송전도는 기독교, 아세아, 극동방송을 통해 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고 비디오를 통한 전도도 계속 실시중이며 문

서전도도 월간충현, 주일설교집을 통해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전도지를 교회 자체에서 제작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교회내에서 전도는 금년도에도 5월의 충동원전도와 특별히 구역단위 확장원을 중심으로한 지구별 전도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지구별 전도는 확장원들을 특별 교육시켜 이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전도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외에도 노방전도, 특수전도등이 이 분야에 속하고 각부 주일학교와 연결하여 교회전체가 전도하는 일에 열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새해 새 설계

● 심방위원회 ●

대심방-봄에 모두 마쳐

우리가 7 지구로 개편한 것이 2년전이었었는데 그때는 한 지구에 500세대가 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각 지구가 700세대에 이르고 점점 세대수가 늘고 있지만 새성전 이주를 생각할 때 아직도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

그래서 금년에는 확장분과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려고 한다. 구역의 권찰이 5세대를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여 5세대를 한 단위로 하여 확장원이라 하여 전도하는 일에 힘쓰려고 한다.

전도위원회와 협력하여 확장원 교육을 3, 6, 9월에 실시하여

확장원을 통한 배가에 힘쓸 계획이다. 확장원들은 구역심방과는 별도로 자신이 맡은 5세대를 주간중에 최소한도 한 번 정도 찾아보며 돌보게 된다. 금요일은 예년과 같이 구역심방을 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구역간의 협력 관계를 위해 10여구역 정도를 묶어 협력 구역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3개구역을 한 묶음으로 해서 협력하고 협동하도록 했다.

이런 여러가지 일들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목표를 향해 발 맞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심방위원장 / 김 원 남 목사

를 위해 2, 5, 9월에는 각 지구별로 모여 구역요원 훈련을 실시하려고 한다.

또한 봄, 가을로 나누어 실시 하던 대심방을 금년에는 3~6월중에 모두 마치고 그외에는 특별, 유고심방을 실시하려고 한다. 구역은 교회의 신경계통과 같은 것이어서 많은 사람이 움직여야 하고 또 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서로가 잊지 말아야겠다.

● 건축위원회 ●

금년엔 새성전에서 예배를

새성전 착공한 지 20개월만인 지난 11월 12일에 온 교회가 감격적인 상량예배를 드린 것을 고비로 금년 중에는 입당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온 성도들의 결심이 더욱 새로와지는 것 같다.

교회전체의 공사규모로 보아 또한 여러가지 공정상의 여건으로 보아 단시일내에 공사 전체의 준공은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금년 내에는 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다소 공정상의 무리가 없을 수가 없으나 금년에는 옮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제 1차 공사인 골조공사를 4월경에 마무리짓고 제 2차 공사인 내장공사를 해동이 되는 대로 곧 착수할 예정이다. 대예배는 물론 16부 주일학교와 모든 기관들이 함께 옮겨져야 하기에 금년중

으로 교육관과 선교센터, 지하실차고와 지하실에 수용될 모든 시설들을 완공하여야 되겠고 본당도 어느 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3차공사로 예정된 본당내의 특수조명과 방음시설, 냉난방시설, 외벽의 돌출이공사 등을 제외한 공사는 금년중에 계속 해서 진행시킬 계획이다.

지난 2년동안의 골조공사에도 많은 자재와 기술과 또한 온 교회의 기도와 재정적인 뒷받침이 요구되었었지만 앞으로의 공사는 더한층의 세밀한 설계와 중요한 자재들과 또한 특수한 기술이 요

구되는 바 많은 재정과 특별한 기도의 뒷받침이 그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는 해이다.

지금까지도 온 정성을 기울였지만 새해에는 더한 각오와 노력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열심이 있어야 될 것이다.



건축위원장 / 김 기 정 장로

새해 새 소망

저 높은 곳을 향해



김 광 신 집사

(고등부 부장)

개 한마리가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열심히 따라가던 개는 갈림길에 도착하더니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였다. 그가 개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동물인 한 마리의 개도 살아가는 목표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목표가, 소망이 없을 수 있겠는가?

새해의 큰 소망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이다. 땅의 것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고집하던 생활에서 해방되고 싶다. 성서는 땅의 것에 집착했던 사람들을 가르쳐 여러가지 표현을 쓰고 있다. 「육의 처를 생각하라」고도 했고, 돈 많은 수전노에게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 많은 재물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였고,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뻔 하였다」 하였고, 「사이비 종교지도자에게 「회칠한 무덤아」 하셨다.

반대로 성서는 하늘에 뜻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다」고 하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고 하셨다.

그리스도에 눈 뜨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되는 것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 해야 할 몇 가지 행동강령을 금년 목표로 정해 본다.

① 무슨 일이 있어도 성서를 하루 10장 이상 읽는다. ② 초자·물

리는 평생 5만번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나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린다. ③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를 통해 금년에 50인 이상 결신자를 얻는다. ④ 인간적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미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여 원수를 가지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분이시니 내 소원을 더욱 축복하셔서 결실을 맺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늘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 은 주

(대학부 4년)

계 간절히 간구하기로 “주님 이었다. 81년을 주앞에서 깨끗이 정리하고 새롭게 새해를 맞도록 제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하였다. 안타깝게도 우둔한 머리는 나의 죄를 기억할 수가 없었다.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맴돌고 가슴은 하나도 뜨거워오지 않았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던지... 그때!! 잘 알던 가스펠송(Gospel song)이 떠올랐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이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이 찬송이 떠오르면서 내게 깨달음이 왔다.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내가 지난 1년동안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나의 연약한 지식과 힘을 의지하였구나. 천지이신 왕되신 주님을 알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그 크신 손길을 외면하였구나. 그런 깨달음과 회개가 물밑듯이 내게 엄습해 왔다. 감사, 기쁨! 내게 깨

매양 오고 가는 세월이지만 올 82년의 새해는 내겐 깊은 감동속의 출발이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의지한 교제속에서 82년 임술(壬戌)년을 맞고 싶은 마음에 모(某)원단(元旦)금식 기도회에 참석했다. 처음엔 출발·희망·새로움·여명(黎明)·준비등등.....의 새해맞이 준비의 생각만이 내 뇌리에 가득하였다. 기도원에 가서도 받기에만 급급했던 내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회개! 81년의 잔여물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82년을 영신(迎新)하기 위해서는 81년을 깨끗이 정리해야 하고 참된 크리스찬의 송구영신은 회개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왔다. 81. 12. 31일 그날 주님

새해 새 소망

달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82년 새해를 새롭게 새 희망으로 설계할 수 있었다. 새해에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리라. 학교에서는 중추적인 학년인만큼 깊이 있는 공부에 치중하고 교회에서

는 대학부의 최고 학년으로서 성실하게 봉사하여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는 순진한 한마리 어린 양이 되고자 한다.

우선 주일학교 봉사를 못한 대신 3부 예배 안내에 관심을 갖고 담당자가 비어 있을 때에는 적은 힘이나마 참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오래전부터 찾아다녔던 혜심원(고아원) 아이들과 더 친해지고 싶었고,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 고아원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었다. 그러다가 관심을 가진 것이 '생명의 전파'였고 매주 오후 시간이면 그곳에서 상담에 임하고 자신이 스스로 많이 배우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 고 해왔다.

새해에도 「외로운 자, 없는 자 소외된 자」 이런자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그들과 같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

소외된 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장 철 환 집사

(청년부 교사)

누구나 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많은 계획과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본인도 지금까지 살아 오는 동안에 그때 그 때에 소망했던 여러가지 계획들을 세워왔다. 누군가 말했듯이 '노인은 추억에 살고 젊은이는 꿈에 산다'고 한것 같이 이 꿈이 바로 새 소망이 아닐까.

고등부 시절에는 실력있는 기독교학생이 되자는 소망을 가진 적이 있었고 청년부 활동 시절에는 「없는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는 소원을 가진 적이 있었다.

'67년 본교회 고등부를 졸업하고 그 해 봄에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해서 '79년 12월까지 가르치는 일과 청년부 활동을 겸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한 사람이 두가지 이상 중복된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이를테면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청년부 활동을 했는데 어느 한 쪽도 만족을 주는 활동이 못되었고 도리어 개인적으로는 힘써 봉사하

면서 부서별로 보아서는 항상 탐탁치 못한 것 같았다. 그래서 '80년도에는 청년부에 출석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없는 자, 소외된 자」를 찾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는 일을 하고 싶었다.

사랑이 넘치는 생활이 늘...

강 순 희 집사

(율계구면)

새해가 되어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주 안에서 변화된 생활을 하기 바라며 우리 집 새 소망을 생각하여 본다.

첫째는 성전 건축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지금의 협소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후손에게 물려주기에 손색이 없는 성전이 되기를 바란다.

둘째는 개인의 신앙생활이 좀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되기를 바라며, 연초에 계획된대로 성경 읽기를 그때 그때 밀리지 않는 일이라든지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와 간구로 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일 등등.....

세째는 올해 큰 아이가 국민학교에 입학한다. 이제 학교생활, 나아가서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에게 이제까지 지녀온 신앙심이 더욱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네째는 하나님의 몸된 우리의 몸이 더욱 건강하게 지켜지기를 바라며 이 모든 소망을 늘 기도으로 간구하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과 남의 작은 허물이라도 너그러이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생활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본다.

직분자의 임무와 역할

배 순 조 목사

(성일교회 시무·총회 교육부장)

에베소서 4장 11, 12절을 보면 교회 직원의 종류, 직원의 목적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펴보면 교회의 직원을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교회 직분을 세운 목적이 첫째가 성도의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이것은 단체의 문제 혹은 직분의 수행 문제이며 세째는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는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서 비추어 볼 때 교회 직분에는 상하의 계급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각 직분이 있는 것이지 직분의 고하나 상하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교회 직분은 결코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공식적인 명예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명예신학 박사에서부터 명예권사, 명예집사까지 있습니다. 참 딱한 일입니다. 교회에는 명예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어떤 간판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하라고 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맡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왜 귀찮을까? 건물이나 치장이나 값비싼 비용이 들어가서 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것이고, 이와같은 교회

에서 장로, 권사, 집사, 권찰의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교회의 기둥이 되고, 중방이 되고, 들보가 되고, 서까래가 되고 심지어 내 하나가 작은 못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줄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이유와 목적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바로 알면서 몇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직회원의 임무

제직회원의 임무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 교인의 의무부터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가 장로나 권사, 집사 이전에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권리가 주어져 있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기 이전에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교인의 의무

1) 예배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교인으로서 어떠한 봉사가 가장 귀한가요? 헌금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몸을 드려 교회의 어려운 일을 돕고 하는 것이 다 귀한 봉사이지만 가장 귀한 봉사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다른 면에 뛰어나도 예배에 소홀히 하는 교인은 교인의 첫째 의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은 물론 순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성껏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예배는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예배 및 수요일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요, 주일 저녁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2)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여 교회 발전을 도모하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교인의 의무입니다.

3) 헌금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경비와 사업을 바로 알고 이에 헌금으로 협조하는 일입니다. 최소한도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4) 전도하는 일입니다.

늘 자신의 생활을 올바르게 가지며 남에게 본이 되는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있는 처소에서 전도하는 일이 교인의 의무입니다.

5) 진리를 보수하며 교회의 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진리를 보수하며 성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교회의 법규와 헌법을 지키며 총회가 제정하여 당회가 그 법에 의해 교회를 치리하는 교회의 법을 지키는 것이 교인의 의무입니다.

2. 장로의 임무

장로의 임무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직회원의 신앙자세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겠다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의 신앙자세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중히 여겨야 할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 주일을 존중히 여기야 하고, 둘째는 예배를, 세째는 말씀을, 네째는 하나님의 것을, 다섯째는 주의 사자를, 여섯째는 교회를, 일곱째는 직분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기서는 직분을 존중히 여기는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함에 생명이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야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분을 존중히 여기며 충성하기 위해 우리는 철저기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배

1)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하는 임무입니다.

행정과 권징을 하는 것을 하고 합니다. 교회행정과 교인들의 생활을 살피면서 권하고 징하는 일인데 이 일을 행할 때 반드시 목사를 도와서 해야 합니다. 협력하는 가운데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2) 치리회원의 품위를 보전해야 합니다.

목사,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권징할 때 자신의 품위를 보전하면서 해야 합니다. 자신이 남을 가르치고 권징할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 항상 자기를 내려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3) 교회의 신령상 형편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을 감독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관심도와 애착심이 있어 교회의 구성구역을 잘 살피고 교인들의 상태를 잘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4) 교인들을 권면하고 선도하는 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인들을 선도하고 권유하려면 분별력과 지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면에서 장로님들은 대심방 기간중 자신의 책임구역만이라도 심방을 하는 일이 좋습니다.

3. 집사의 임무

1) 봉사자의 임무입니다.

집사라는 말은 「종」, 「하인」, 「섬기는 자」란 뜻이 있습니다. 집사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졌어도 교회에서는 하나의 일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세가 되어 「일꾼, 봉사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교회 재정을 염려하며 살피는 일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염려하며 교회재정의 입·출에 대해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재정은 남아도 안되고 모자라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신경써서 참여하며 관리하는 일입니다.

3) 교인들을 살피며 구제사업에 열심이어야 합니다.

4. 권찰의 임무

권찰은 물론 제직회원은 아닙니다. 마는 무척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권찰들에게 성경 한 구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나에게 맡겨준 구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기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상태 하에서 잠언 27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 마음을 두는 일이 권찰이 가져야 할 마음과 일입니다.

권찰들에게는 첫째 구역원을 심방하는 일, 둘째 구역원의 동태를 보고하는 일, 세째 구역예배를 우선하는 일, 네째로 교회소식을 전달하는 일, 다섯째로 목사의 복회를 협력하는 일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는 매년 새로운 직분자를 임명한다〉

로 알고 이를 바로 행해야 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맡은 자, 혹은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의 기본신앙인 다음의 네 가지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1.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일시적으로 맡은 관리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1장에서 구원의 도리를 말하며 그 종결론으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하고 말씀하며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과 같이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내 건강도, 물질도, 지식도, 재능도 다 하나님의 것인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수많은 물자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은 내 것입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29장 11~14절까지의 다윗의 기도를 봅시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립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 하나님의 회수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소유주는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욕의 경우를 잘 압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욕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수권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물질을, 재능을 주셨지만 빼앗아갈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종두리께 빼앗아 갑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그대로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드릴 때에 주인은 그것을 빼앗아버린 사

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의 사용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 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조그마한 예배당을 지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당을 짓기까지의 표어가 「주가 쓰시겠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주님이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성령 내어드릴 줄 아는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4. 하나님의 감사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19절에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회계할 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결과를 놓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부나 각 기관에서도 감사권이 있어 예고없이 갑자기 감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바로 썼는가' '물질을 바로 사용했나' '십일조를 온전하게 바쳤나' '시간을 바르게 썼나'를 때마다, 일마다 감사권을 발동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리기에 주인이 와서 회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낭비는 죄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주님이 부스러기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일에 언젠가는 우리 청지기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할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아름다운 보고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직회원의 봉사자세

이제 실제적으로 봉사하는 입장에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봉사는 사람에게,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렘 6 : 7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2.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봉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재산이 많고 경력이 많고, 재주가 많아도 믿음이 없는 자의 봉사는 주님 앞에 합당한 봉사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눅 17 : 5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3. 말없이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 8 절에 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에 나가서 양을 먹이고 왔는데, 주인은 발을 갈라고 하고, 발을 갈고 오니 쉬라는 말은 없고 주인이 음식먹는 동안에 떠를 떠고 서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좀 지나치게 일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말이 없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큰 일 작은 일들

이 많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이 말에서부터 나옵니다. 일을 안하는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일꾼은 될지언정 말꾼은 되지 맙시다.

4. 보수를 조건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하인이 일을 해 놓고 칭찬이나 보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그 자체가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주 앞에서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눅 17 : 10 『이와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 할지니라』

지금 중헌교회에서 영동에 새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물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오는 종과 같은 중심에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아무리 많이 바치고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이 몸이 닳도록 주고 하였다 해도 이는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큰 교회의 특징중 하나는 소위 창설교인, 오래된 교인들의 뒷세가 심한 것입니다. 다 잘못된 줄 압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들은 감사만 하면 될 것입니다.

5. 주의 것으로 하듯 해야 합니다.

주의 것으로 하듯 해야 합니다.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주께 하듯, 하나님의 것으로 하듯 해야 합니다.

대상 29 : 14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

렸을 뿐이니이다』.

6. 즐겁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즐겁고 단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며 봉사해 온 한 사람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요셉은 가장 모범적인 청지기요, 봉사자였습니다. 그는 원치 않게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청지기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개 종에게 큰 집안의 모든 일을 위임하고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요셉을 신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뒷사람의 간섭과 감독을 받으며 일한다면 벌써 그 사람은 시원치 않은 사람입니다. 남이 보거나 말거나, 알아주거나 말거나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9장 5 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자기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와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고 했습니다.

종을 한명 잘 썼더니 주인이 복을 받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모두가 금년에도 이런 수준의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원고는 단기 수련회 배운 조목사의 강의
■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오 태 용

한국사람만큼 시한감각이 예민한 민족도 별로 없는성 싶다. 연말연시가 되면 묵은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느라고 모두가 분주한데 여기에 매스컴이 끼어들어 나라 안이 온통 북적거린다. 반면 서구인들은 해가 바뀐다고 해서 특별히 더 설치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한다. 나는 서구 기독교의 몰락과 한국 기독교의 부흥 현상을 이러한 계절감각의 차이에서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무슨 「송년의 의미」니, 「새해의 결심」이니 하는 메시지를 통해 살아온 삶과 살아갈 삶을 날카롭게 대조시키면서 그 속에 나를 던져넣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시도하는 것이 유행행

사로 되어있다. 송구영신의 의미를 철저히 되새기는 삶-그게 바로 한국(기독교)인의 실상인 것 같다. 그러나 서구인들은 국민 전체가 「묵은 해·새해」에 대해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강단에서 “지난 일년간 살아온 삶을 반성하고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그리스도를 위해 한번 살아봅시다”는 식의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송구영신의 의미 속에서 신앙의 새로운 결단을 얻어내는 작업은 우리나라에 비해 미비하게 아닌가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뚜렷한 사철의 변화를 주시고 거기에 맞춰 실기(矢機)하지 않는 농사를 짓도록 우리 조상

들을 훈련시켜온 것은 크나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고 하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뼈에 저리도록 심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기회를 잘 이용하는 데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남다른 지혜를 발휘해 왔으니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사라는 사도의 권면대로 임술년 한 해도 우리 민족의 천부적인 삶의 지혜를 발휘하여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실기(矢機)하지 않고 열매맺는 삶으로 이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면 당연히 요구되는게 우선순위의 삶이고 절제(self-control)의 삶이다. 너나할 것 없이 바쁜 나날을 사는 우리들인데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 해야 할 것을 매일 새벽시간에 계획하고,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 철저한 자기관리로 절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금년 일년도 별볼일 없는 한해로 지나가고 말 것이다. 연말 정산 때 흑자를 올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위하여 당신은 어떤 삶을 계획 세우고 계십니까.

* 물맷돌 *

왜 말씀이

즐겁지 못하나?

시편 19: 7-10에 말하기를 “여호와 의 율법은 금 곧 맑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 다”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단 것이고 즐거운 것인데 「왜 나에게만 그렇지 못할까?」

① 무슨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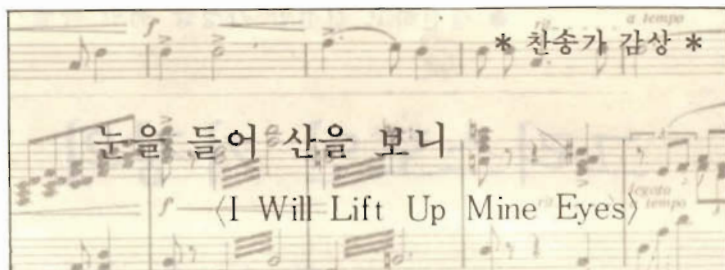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어머니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어도 그 맛이 쓰기만 하여 먹지 못할 때를 모두 경험해 보았으리라. 식물(음식) 자체는 맛있고 단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 맛이 쓴 이유는 우리의 몸 속에 병균의 해독으로 고장이 생겨 미각이 정상아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영적질병, 또는 죄의 독으로 인하여 성경의 단 말씀이 쓴 것 같이 된다. 성경 그 자체는 언제나 꿀보다 단 것이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이 그 단맛을 느끼려면 자기의 영적 질병에서 떠나야 한다.

②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까닭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없는 문자 그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주관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없는 것이라면, 누구에게든지 같은 맛을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그 말씀의 정체를 섭취할 수 있고 또한 그 맛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 자는 없을 것이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떨리잖고
 주가 깨어 지키네
 이스라엘 지키신이
 졸며 쉬지 않도다.



아들 / 1981년 /

벌써 1981년 한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 대신 1982년이라는 희망에 찬 새해가 무엇인가를 한아름 안고 우리를 찾아와 주었다.

금년 새해에는 어떤 선물들을 남기고 갈 것인지 자못 궁금하기만 하다. 그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했다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도 나를 도와 줄 사람이라고는 없는 것 같으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내 가정과, 교회와 민

족을 도와주신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볼때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존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여러가지 주위 환경이 그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키신 그 하나님은 졸며 쉬지 않으시면서 도우셨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나를 도우시고 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도우신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상 우리를 손댈 자 없으며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
 우편 그늘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영영토록
 보호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편대의 그늘이 되어주시면 누가 손댈 수 있을까?

이 찬송을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인생 나그네길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인하는 성도에 의하여 불려진 찬송인 듯하다.

1982년 새해도 이 찬송을 믿음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김 하 진 목사 <성가부지도>

● 책 소개 ●

문 영 탁 역편

구약 논문 시리즈(2)

성광문화사, 224페이지, 가격 2,500원

구약신학 논문집 제2집이 나왔다. 제1집에 이어 구약이해에 큰 도움을 줄 석학들의 귀한 논문들이 8편 실려있다.

구약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알았으면 하는 문제들이나 꼭 알아야 할 것들을 깊이있게 다룬 논

문물이다. 학적이면서도 이해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바른 성경해석과 취급에 따른 경건과 은혜가 있다. 따라서 서문에 있는대로 "목회자와 신학도,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에게" 크게 유익한 책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저자들은 다같이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평생을 연구에 바쳤거나 바치고 있는 분들이다. 내용소개를 대신하여 수록된 논문들의 제목과 저자 및 연대를 소개한다.

1. 창세기 해석(지반 호로닝겐 / 1970)
2. 오경에 나타난 "엘로힘"과

"여호와"의 용법(윌리엄 헨리 그린 / 1906)

3.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레온 모리스 / 1965)

4. 전도서 해석(제이 스탬포드 라이트 / 1946)

5. 요나서의 메시지(제이 에이 취 스택 / 1969)

6.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에드워드 제이 영 / 1952)

7. 구약의 선지자들(에드워드 제이 영 / 1963)

8. 회복기의 선지자들(토마스 무어 / 1856)

성 주 진 전도사
 <대학부 부지도>

그리스도인 가정의 경건생활

배 도 선 목사

(O. M. F. 선교사)

가정은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단위로서 또한 인생의 모든 출발점과도 같다. 특히 크리스찬에게서 가정은 영적사역의 기초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기관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이 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파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으며 심지어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이와같은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은 모든 교육의 기본적인 도장이라는 면에서 건전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월간충현에서는 금년도 한 해에 「가정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정을 이루어나가는데 다 소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

요즘 시대에 그 누구도 자신의 가정생활을 여러사람 앞에 공개하게 될 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활동할 때에 외적으로는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많아도 가정의 일원으로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란 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서구사회의 가정생활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혼란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일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제가 보기엔 겉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살지만 실상 속으로는 이미 이혼한 사람들처럼 한 집안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깨어진 가정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정을 침범하고 가정생활을 파괴하기 위해 여러가지로 압박과 해를 끼치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의 출발과 중심은 교회생활보다도 가정생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정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경건생활입니다. 이 가정의 경건생활을 첫째 원리와, 둘째 실제적인 방법과, 셋째 그의 실제적인 문제들로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1. 경건생활의 원리

신명기 6장에서 가정의 경건생활에 대한 중심구절인 4, 5절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가정의 경건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이면서도 동양은 남존여비, 서양은 여존남비의 사상이 짙은 듯 한데 이것은 비기독교인 가정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삼각형을 이루어 가정의 맨 뒷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아래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 흔들리지 않으며 균형적인 아름답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에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특성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 사랑을 중심한 성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였을 때 이 말씀을 두고 대답하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처럼 우선적인 것이 사랑임을,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생활,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을 계속 해서 보게 되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경건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한국 사람은 기도에는 보통 열심이 아닌 듯 하나 말씀의 양육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나 말씀양육은 경건생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살펴보면 "...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녀를 가르치는 데에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부터 자녀를 중요시하는 사상은 강했으나 이스라엘 백성

이 종교적으로 굳어지고 형식적인 것으로 변해지자 그들의 생활도 어론과 남자중심이 되어지고 여자와 가정과 자녀는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자녀를 키우는 기관입니다. 단순히 가정이 피곤한 아버지의 피난처로만 될 때 다른 가족 식구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도리어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그때부터 그날의 제일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되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며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보다도 모든 집에 하나씩 있는 텔레비전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시간씩 이 우상 앞에서 꼼짝 못하고 경배를 합니다. 경건생활은 물론 밀려납니다. 경건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 없습니다. 여기에 방해가 되면 텔레비전도 켜버리세요. 자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세요. 차라리 조금 손해보는 것이 경건생활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것이 됩니다. 가정에서 우선적인 것은 우선적으로 보호하십시오. 가정의 경건생활은 아주 절대적인 보호책을 강구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9절을 살펴보면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집은 예수님이 중심이 된 집입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이웃에 알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시한 사랑의 가정,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가정의 경건생활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되는 가정,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가정, 이 원칙하



에 가정이 이끌어질 때 그리스도인 가정의 경건생활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경건생활의 실제적인 방법

누구나 경건한 생활을 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합니다.

미혼인 사람들은 결혼 전에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처음엔 좀 어색하겠지만 만날 때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성경보고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결혼에 실패하거나 불성한 영적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이같은 영적교제가 중요한 줄 알면서도 아무런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혼 후에 정기적인 가정 예배 시간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혼 직후부터 아니 결혼식을 올린 첫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의 경건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이 되며 동시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사람이 시작한 가정에 빠가 아기가 생기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아기를 위해 기도하고 태어나게 되면 더욱 부모들은 행동하는 것도 신경을 써서 아이가 자라는대로 어린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외에 각자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며 짧은 시간이라도 가급적 매일 계속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매일 아침을 먹기 전에 각자가 가졌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지요. 시간이 없으면 밥을 먹지 말고 우선 성경부터 보세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알게 된다면 밥먹는 시간을 줄이고라도 성경을 보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때부터 개인의 경건시간을 갖도록 훈련된 아이는 그가 후에 자라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도 결코 말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가정의 경

"단순히 가정이 피곤한 아버지의 피난처로만 될 때 다른 가족 식구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도리어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그때부터 그날의 제일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생활은 이처럼 개인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 그리고 한 가족이 함께 모여 한 자리에서 매일매일 드리는 가정예배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3. 가정 경건생활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들

사실 가정의 경건생활은 결혼하여 새가정을 이룬 다음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이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지요. 식구끼리 시간도 잘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생각과 성격도 뚜렷하게 달라진 상태로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학생이 많은 집에서는 아침식사 시간도 같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리하여 점점 시간도 안맞고 성격도, 생각도 안맞게 되는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 문제,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같이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침 시간이 제일 좋은데 안되면 저녁 시간, 그것도 정 안되는 가정이라면 매일 아니더라도 시간을 정하고 평일이 어려운 가정은 주일날 시간을 만드세요. 개인은 최하 하루에 한번, 가족은 일주일에 한번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모든 시간중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방학 기간에는 물론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에는 특별시간을 가집니다. 오후에 따로 한 아이씩만 나서 한 십분가량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표모으기를 좋아하면 우표를 보여주고 성경을 펴놓고 지금 그 아이에게 필요한 말씀을 짧아도 한 가지 심어주고 외우게 하거나 쓰게 하거나 생활에 적용시키도록 합니다. 때로는 위로의 말, 때로는 충고의 말, 때로는 칭찬의 말을 하고 때로는 그저 예수님의 사랑만을 보여주는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아이

“사업할 때, 재산을 얻을 때, 세금을 낼 때, 헌금을 바칠 때, 양심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양심은 날마다의 경건한 시간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서로 상대방의 양심이 되어 도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은 그 시간을 상당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 아빠가 나를 위하여 시간을 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절날이나 생일이 되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우리 세째 아이가 만 여섯살에 일보으로 학교입학을 하러 갈 때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골라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4, 5년 전의 일인데 특별히 이 말씀 중 ‘나는 일을 해야 한다. 부끄러움 없이 일해야 한다’라고 그 아이는 아직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주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그 아이에게 준 선물 중에 이것이 가장 가치있고 귀한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2절을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셨습니다. 경건생활을 계속하다가도 부모들이 아이들 키우느라고, 사업하느라고 바빠지면 신앙생활이 냉랭해 집니다.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사업도 안정이 되어 좀 여유가 생기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가 신앙의 위험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었다고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18절을 보면 “여호와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사업할 때, 재산을 얻을 때, 세금을 낼 때, 헌금을 바칠 때, 양심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

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양심은 날마다의 경건한 시간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서로 상대방의 양심이 되어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후일에 아이들이 여러모로 자기 인생관이나 신앙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부모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부모를 존경하고 믿는 아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아이들 친구나 선생님에게는 이야기해도 부모에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아이들이 각자 서로 부모와 서로 대화하는 것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경건한 가정생활의 열매입니다. 그런 청년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여유를 주세요. 무엇을 같이 하세요. 그러면 더욱 신앙지도의 기회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왜 많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가정의 경건생활을 영위하십시오. ●

(이 원고는 지난해 11월 새가정부의 「가정 세미나」의 배도선선교사의 강의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미움 해결책

지난 세대들보다 우리는 기막힌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다. 너무 속도가 빨라 그 감각을 상실한 채 환경과 몸이 공중에 붕 떠다녀도 조금도 이상하게 느끼지를 않는다.

그러나 미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들 생활에 남아있다. 우리들의 대화 속에 또 어른들의 웅어리진 한(恨) 속에 웅크리고 있다. 다방에서, 친구들에게서, 책에서, 영화에서 미움을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다.

이따금 이런 것들이 우리들 기막히게 슬프게 한다.

일생을 부모의 원수를 찾아헤메다 신나게 원수를 갚은 후, 멍하게 슬픔과 허무를 감추지 못하는 과거를 담은 TV의 장면들, 그들의 표정은 우리의 마음을 한결같이 어둡게 한다.

친구 K는 가난한 대가족의 맏며느리이다. 어쩌다 우리를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부모와 시집 식구들을 미워하는 이야기로 일관한다. 가정에서 쫓겨 뭉쳐두었던 미움이 친구들 앞에서 술술 풀어놓아 훌가분한 표정을 짓다가도 돌아갈 때는 모조리 주어담아 가슴에 안고 간다. 그런 후 또 만나면 그 미움의 이야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길어진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 주다가 돌아서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더구나 그는 집사인데…….

교회를 잘 받들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의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생활에 적용 못하는 사랑은 오바 갖에 매단 꽃일 뿐이다.

우리 민족이 긴 세월을 두고 심어놓은 미움의 뿌리가 너무 깊이 크리스찬이 된 후에도 싹뿌리까지 짙그리 끊어 내기가 어려운 탓일까?

아무튼 K를 만난 날은 눈오는 하늘처럼 퍽킵한 마음으로 귀가하게 된다.

대문에 들어서자, 그 어둔 마음을 지우려고 큰 애를 향해 소리친다.

「공부했니?」

「아니요」

미안한듯 큰 애는 눈을 꼭게 치켜뜨고 “짜릿짜릿”하며 애교를 떤다. 공부를 안했으니 미안하다는 표현으로 받아주고 웃어넘겼다.

연년생의 두 아들은 밥먹듯이 잘 싸운다. 싸우고 큰 아이들이 더 정이 깊다지만 어떤 때는 지나칠 때가 많아 부모의 애간장을 태운다. 들어보면 시시한 것을 가지고 미움을 살갓까지 멀어가며 표현하니 말이다.

과자를 놓고 더 먹겠다고 싸우고, 오목을 두다 왜 자

이 전 속

(소설가)

꾸 이기느냐고 으르렁거리고, 만화책을 서로 보겠다고도 투정을 해서 그들의 얼굴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찌그러진 표정으로 가득찬다.

이런 아이들을 꾸짖는 것도 지쳐 그들 옆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싸우던 아이들이 별안간 눈싸움을 했다. 작은 애가 “짜릿짜릿”하고 형에게 눈을 흘리자, 큰 애가 “찌릿찌릿”하고 염소들이 싸우듯 머리를 흔들었다.

아뽕사! 새로운 형태의 미움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그들을 쳐다봤다.

“번쩍번쩍” 그 다음엔 “틱틱”하고는 다정하게 놀기 시작했다.

짜릿짜릿, 찌릿찌릿하게 밟지만 번쩍번쩍 부딪히고 틱틱팅팅 뒹겨내 보내자는 그들의 미움 해결책이 매우 스피이드해서 어리둥절했다.

용서하지 못할 때 미움이 쌓이는 법.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찌니라”하신 주님의 용서회수가 마음을 스쳤다.

지금의 우리 아이들처럼 단순한 방법을 쓴다면 그 술한 미움도 “짜릿짜릿, 찌릿찌릿, 번쩍번쩍, 틱틱”하며 스피이드하게 털어버릴 수 있으련만.



김창인 목사의

주기도문 강해 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아
름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큼 완전한 기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
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받는 기도
가 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은혜받은 일은 한없이 많
았습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주후 70
년부터 313년까지 240년이 넘는 오
랜 기간동안 교회를 핍박하였습니
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
속과 굴 속으로 핍박을 피하여 신
앙을 지켰습니다. 제가 로마에 갔
을 때 그때 그들이 파 놓은 굴이 17
km, 40리가 넘는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핍박받
으며 숨어 예배를 드릴 때에 꼭 주
기도문을 외우고 예배를 시작하였
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한 마디 한
마디가 핍박받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
은 아홉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기도의 서두, 기도
의 내용을 일곱가지, 마지막 결론
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기도의 서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서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된 것은 아주 중
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 된다
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
에게 드러지는 기도인지, 누구에게
간구하는 기도인지 분명해야 합니
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찾고
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 하늘에 계신

이 말을 성부 하나님은 하늘 위
에만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면 잘못
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라고 하는 뜻은

첫째, '죄와 상관 없으신 거룩하
신 하나님 아버지여' 라는 뜻입니
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
십니다. 공기가 어디에도 있는 것
처럼, 물론 공기가 없는 곳도 있지
만 하나님의 손길은 미치지 않는 곳
이 없으며 하나님의 눈동자는 보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그의 사랑과 지혜와 권능으
로 가득 채워져 계십니다. 이런 하
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고 한 것은 죄와 상관없음을 뜻
하는 것입니다.

둘째,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라
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권
세와 영광, 사람의 그 무엇과도 비
교할 수 없습니다.

셋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네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
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만물을 지혜로
설계하시고 권능으로 창조하신 후
에 오늘도 이것들을 다 간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
더 생각해 봅시다. 소련은 하나님
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 공산국가
입니다. 소련의 정치가는 하나님은
없다고 부르짖고 모든 과학자들도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가르치도
록 합니다. 그러나 소련의 과학자
중 한 사람도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곳에 놀라운 힘이, 알 수 없는 신
비와 질서가 있다는 것 부인하는 사
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뚱
이를 한번 봅시다. 모든 기관들의
형태나 그 기능들을 살펴볼 때 얼마
나 신기하고 오묘합니까? 만일 우
리의 몸뚱이를 썩혀 비료를 한다면
만원짜리도 안될 테지만 이 눈동자
하나를 만들려면 몇억불을 들여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17kg정도 밖
에 되지 않는 우리 몸속의 핏줄이
세계를 두바퀴 반을 돌 수 있을만
큼 길다는 사실등, 우리는 하나님
의 이 놀라운 지혜와 권능 그 재산
의 풍성함을 미처 상상도 할 수 없
습니다.

●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물론 내 하나님, 내 아버지도 되지
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입
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
들이 먹는 양식도 하나님께서 지으
셨으니 창조의 원리로 볼 때에 창
조하신 분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요. 땅 위의 생명은 모두 다 하
나님의 손길에서 지음을 받았으니 우
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특수 은총을 받은 원리를

생각해 볼 때에 내 하나님입니다.
나를 특별히, 여러분을 특별히 택
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속죄해 주
시고 성령님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어 자녀가 되게 하셨으
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내 하나님도 되십니다.

●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
게 되면 참으로 가깝게 여겨집니다.
‘아버지’ 하는 말은 나를 키워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딸을 키워주고 보
호해 주고 징계도 하며 생활을 줍
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
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과 생명
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
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고, 하
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한 소
유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정하고 믿음으
로 구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아들의 사정을
알아도 돈이 없어 못 줄 수도 있고
아들의 사정을 알아도 힘이 없어 병
을 못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
나 사랑과 지혜, 권능과 재산을 다
가지신 하나님, 그 분이 나의 아버
지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으면 우리의 염
려, 걱정, 근심, 두려움은 모두 사
라집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작은 짐승들도 자기 어미의 보호
를 받게 되면 겁없이 당돌해집니다.
하물며 큰 능력의 하나님을 아버지
로 찾는 사람에게 어찌 두려움이 있
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의 첫 마디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
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생각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
도해야 되겠습니다.

기 도 · IV

- 정월의 시 -

항시 열오른 이마에
도타운 손 없으신님은
창천(蒼天) 높은 곳에서
낮은 나를 내려다 보시어요.

가슴 앓는
내 병상의 밤을 밝히시어
뿌려놓으신 섭섭한 눈물은
새벽 못가에서 날아오르는
금빛 햇살이어요.

나를 사랑하느나는
절절한 님의 음성은
꽃향내 밟고 오는 미풍이어요.
흰나리 일새 가버이 떨어
온 밤 적시는 가랑비어요.

지각(地殼) 찢는 불벌에
내 영이 이룰어 피곤에 지친 때
님은 구원의 나래 퍼시어
서넛 꽃구름 위에 누이시어요.

길 잃은 어린 양 위에 비탈오르다
가시에 물린 살결바다에
숫아나는 고운 피
그건 한 송이 눈부신 장미꽃이어요.
님이 까마귀인 나를 보고
하이얀 비둘기 되라시면
선혈 쏟을지라도
까만 것 모다 뽑아버릴게요.

엄 창 섭

(시 인)

시작(詩作) 노트 / 나는 요즈음 「님」이라는 유일한 호칭을 주어로 일관
된 가락을 유지하는 「님」에서 비롯하여 「님」으로 종결되는 시를 쓰려고 불
면의 밤을 밝힙니다. 손 없는 바람이 강을 두드릴 때에는 허무(Nichts)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열전 고동사교로 병상에 누워 고통을 겪을
때 나를 눈동자 같이 사랑하시는 님을, 상한 팔레도 뻗지 않으시며 항상 열오
른 나의 이마에 손을 얹으신 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님을 만나야 합
니다. 오늘날 현대의 불행과 비극은 님을 실성한대지 지인합니다. 님과의 만
남이 없으면 난파선처럼 표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나는 혼로 살아 귀
하신 만로의 주님께 (나의 다함없는 지각)을 기도로 드리려는 참견을 작업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칼빈주의 구원관 (II)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4. 칭의

칭의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신학적인 술어로 칭의(Justification)라 부른다. 구원을 양면에서 말했다. 구원의 내부는 중생이고 외부는 칭의이다. 중생은 성령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시는 역사이고, 칭의는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 하시는 역사이다.

벌코프(L. Berkhof)는 그의 조직신학에서 칭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하고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법적 선포이다” 판사가 죄수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것은 그것이 죄수의 마음속에 어떤 작용을 한 것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외부 세계에서 선포하는 것 뿐이다. 칭의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다. 칭의는 상속(inherited)이 아니고 전가(imputed)이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모든 자손에게 죄를 전가시킨 것 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의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시킨다. 이것이 칭의로 나타난다.

그리고 죄인들을 의롭다 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를 취급하는 방법과 개인 개인을 취급하는 방법이 있다.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구원받은 인간을 의인으로 간주하셨다. (벧전 1 : 3 ; 3 : 21) 이것은

개인 개인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을 믿을 때이다. (갈 2 : 16 ; 3 : 8)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많은 사람은 그 무엇으로든지 다시 정리하지 못한다. (롬 8 : 31~35) 그것은 칭의의 은혜를 믿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졌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와 같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을 가리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세마포)을 준비한 사람이라 했다.

5. 성화

성화의 교리는 초대 교리부터 어거스틴 시대까지는 분명치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성화의 교리가 분명해졌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외부 세계에서 인간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법적 선포이나 성화는 인간 내부에서 인격이 성결해지는 것이다. 개혁주의자들의 교리는 칭의나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 처럼 성화도 믿음으로만 되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고 했고 칭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어지고 성화는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했다.

1) 칭의와 성화

① 칭의는 밖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성화는 내부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② 칭의는 원죄에서 놓이는 것이고 성화는 자범죄에서부터 놓이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원

죄이고 다른 또 하나는 자범죄이다. 원죄 안에는 모든 자범죄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해결 방법은 자범죄에서 놓이고 의로와지는 것이 아니고 원죄에서 해방될 때 결과적으로 성결해진다.

③ 칭의는 완성적인 것이고 성화는 미완성적인 것이다. 칭의가 완성적이라는 것은 단번에 다 주셨기 때문이고 성화가 미완성적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성화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에게 완전히 적용되는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화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없이 우리의 칭의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재림 없이는 완전 성화가 있을 수 없다.

2) 인격과 성화

“그러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고후 7 : 1)고 사도 바울은 말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의 성화를 영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육의 더러운 것에서도 성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인격 전부의 성화를 말한다. 우리의 영과 육이 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죄악이 영과 육에 모두 침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죄가 영에 먼저 침투되었다. 그러므로 영의 성결이 있어야 육의 성결도 있다.

인격의 성화란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외면에 비친다. 그러나 이 성화가 우리의 구원문제와 관련이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중생할 때 다시 찾는다. 그러나 중생과 함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선명하게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성화된 사람은 그 인격이 그리스도화 하게 된다.

신앙생활이란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다.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좀처럼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잘 걸어간다. 그러므로 성경이 성화를 강조하는 것은 승리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있는 것은 또한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좌우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할 때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들 중에도 성화의 정도는 같지 않다.

성화가 구원 문제와 관련은 없을 지라도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성화의 차이는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형상의 정도를 말한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중생할 때 다시 찾는다. (엡 4 : 22~24; 골 3 : 10) 그러나 중생과 함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선명하게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갈 4 : 19) 성화된 사람은 그 인격이 그리스도화 하게 된다.

② 성화의 차이는 영적 통찰력의 정도를 말한다.

영적 통찰력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직관으로 받은 것이다 (고전 2 : 10~11) 중생 못한 사람도 영적 통찰력의 눈이 없다. 이것을 가리켜 영적 소경이라고 한다. (마 15 : 14; 23 : 26) 성화된 사람은 영적 통찰력이 밝아지매 이런 사람은 법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은 영적 통찰력이 없이는 분별할 수 없다.

③ 성화의 차이는 행보(行步)의 정도를 말한다.

신앙생활이란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다.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일수록 좀처럼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잘 걸어간다. 성화의 수준이 낮은 사람은 죄악에 잘 넘어진다. 그러나 성화된 사람은 죄를

잘 이긴다. 그러므로 성경이 성화를 강조하는 것은 승리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성화된 인격이 없이는 가시밭과 같은 세상을 실족하지 않고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3) 성화의 방편

우리가 성화의 방편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세가지만 들어보겠다.

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방편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성화시키는데 사용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부정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성결케 하신다. (약 1 : 29) 신령한 것 (벧전 2 : 2) 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고전 3 : 2)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성화된다. (요 17 : 17; 엡 5 : 26; 시 119 : 9 등 참조)

② 성례는 성화의 방편이다.

성례는 신비와 같은 뜻으로 본다. 칼빈은 성례와 성화를 말하기를 “만일 성령의 내적 역사가 없다면 성화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은 마치 태양 광선이 실명환자에게 비추는 것 같고 귀머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것은 태양 광선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고 음향으로 귀가 듣는 것과 같다. 빛이 없다면 어떤 불체라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어떤 소리도 영향을 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성례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다”고 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이와 같다. 이것은 세례를 베풀 때나 성찬식을 베풀 때나 마찬가지다. 모든 예식이 성령의 내적 역사가 없이는 무효하다는 것이다.

③ 극기는 성화의 방편이다.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없이 그리스도를 긍정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따르라 (마 16 : 24)고 했다. 육을 부정하지 않고 영을 긍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항상 자기를 부정하지 말고 긍정하라고 한다. 바울이 날마다 육의 사람을 부정하고 성령을 따를 때 성화의 단계에 나간 것이다. 자기 부정의 회수가 많아질수록 영의 사람은 강해진다.

6. 궁극적 구원

궁극적인 구원은 칼빈의 5대 교리 중의 하나이다. 이것을 가리켜 성도의 견인(堅忍)이라고도 한다. 이 말의 뜻은 “견고하게 지속해 나간다”의 뜻이다. 이의 첫째 뜻점은 결단으로 교회에 다니던 가짜 교인의 구원 문제가 아니고 성령받은 사람이 있는 성도의 구원을 논하는 것이며, 둘째는 성령받은 교인에게는 일시적인 타락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타락하여 지옥가는 법이 없다는 말이다.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성령받은 교인이라도 완전히 타락하여 지옥에 간다고 주장하나 칼빈주의에서는 외형적 교인은 완전 타락하여 버림받은 일이 있으나 잠중생한 사람은 지옥에 버림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것은 1981년 2월호 「월간 중현」 칼빈의 5대교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수확하기 위해 일어날 때

김 영 휘 목사

(전 해외복음선교회 지도·도미유학 중)

해외복음선교회가 창설된 지 금년들어 만 14년, 해외선교사는 처음 인도네시아로 파송한 것이 1971년으로 금년 만 11년째를 맞게 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선교의 불이 일어나서 온통 선교로 들끓었다. 따라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지만 반면에 보다 바른 기반 위에서 바른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한다는 비판과 자성들도 많이 있어왔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이곳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하는 교회로서 책임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고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차츰 안정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환으로 지난해 해외복음선교회 지도인 김영휘목사와 회장인 최석주장로가 본 교회가 파송한 선교지 이곳을 모두 돌며 생생하게 느낀 선교지의 상황과 그를 통한 새로운 각 지역별 선교의 방향등을 제시한 것을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소개한다. 앞으로 보다 발전된 선교사역을 위해 모두가 현재의 상황을 바로 이해하며 한마음으로 돕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편집자)

● 서 론

먼저 이번에 선교지 및 세계 여러곳을 하나님의 은혜와 온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뒷받침으로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이 지면을 통해서 당회와 해외복음선교회와 온 성도님들과 그리고 여행기간 중에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던 해외의 여러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들의 온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다음의 보고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의 여행일정이 너무 짧고 무리한 계획 가운데서 강행군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짧은 시간내에 극히 단편적인 것만을 보고한 것인지도 모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행일지가 아니라 선교적 안목에서 보고하는 것임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1. 선교여행의 목적

이번 선교여행의 목적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현지에서 만나 현지 상황을 파악하여 올바른 선교정책을 의논하고 수립하는 데 있다.

2) 해외 한인교회 및 교우들과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선교협력을 꾀하는 데 있다.

특히 해외의 자매관계 교회와의 유대를 확고히 하여 상호 협력하는 데 있다.

3) 유럽의 공산권 선교기관을 방문하여 공산권 선교전략의 기초를 세우려 했다.

4) 선교훈련단체를 방문하여 앞으로 본 교회 및 한국교회의 장기적인 선교훈련계획을 세우는 데 있다.

2. 선교일정

상기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선교회 회장 최석주장로님과 필자가 실제로 다음과 같은 여행일정 기간동안 선교지를 순방하였다.

1981. 7. 13. 서울 출발→7. 13~17 로스앤젤레스→7. 18~20 캐나다 칼가리→7. 21~24 토론토→7. 25~29 시카고→7. 29~8. 3 뉴욕, 필라델피아, 아틀란타→8. 3~5 마이아미→8. 6~11 칠레 산티아고→8. 11~13 파라과이 아순시온→8. 13~15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8. 16~23 서독 프랑크푸르트, 화란,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위스 제네바, 로잔느, 라브리·펠로우쉽(L'ABRI Fellowship), 칠리히, 서독 튜빙겐, 뮌헨, 비스바덴→8. 24~25 이탈리아 로마→8. 25~9. 5 이집트 카이로, 이스라엘 예루살렘→9.

6~8 인도 델리, 스리나가르, 쿨마르그→9. 9~1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9. 16~17 홍콩→9. 18 미국(총 16개국)

국가수로는 16개국이었으나 지역으로는 상기 이외에도 여러 지역이므로 생략한다.

이상의 지역을 68일간 순방했으니 사실상 무리한 여정이라 하겠다.

3. 구체적 선교함의 내용

상기지역을 순방한 자세한 내용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선교적인 측면에서 협의한 내용과 결의사항만 지역별로 묶어서 보고하고자 한다.

북미지역 (미국과 캐나다)

미국에서는 로스엔젤레스의 나성 빌라델비아교회(조천일목사 시무)와 충현교회 출신의 여러 교우를 만났고, 시카고의 미현교회(본교회 임현덕장로가 개척한 교회), 뉴욕의 한인빌립보장로교회(이종표 목사 시무), 빌라델비아에서 여러 교우들을 만났고, 캐나다에서는 칼가리 한인재일장로교회(천성덕목사 시무)와 토론토 중앙교회(정관일목사 시무) 등을 방문하여 선교에 관한 여러가지 협의를 하였다. 이상의 지역에서 만난 분들의 이름을 생략한다.

구체적 협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본 교회 및 선교본부와 현지와의 모든 연락을 지역마다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했다.

② 본 교회 선교본부의 선교사업을 소개하고 그 협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③ 한인교도들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거주하는 곳이므로 이들에 대한 영적 지도와 특히 2세들의 교육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본교회가 협력하는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④ 이 지역의 교포교회들을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시키며, 모국의 교회에 대하여 선교지원 및 선교후보자들의 선교훈련을 위한 훈련지로서 깊은 유대관계를 갖는 일에 대해 협의하였다.

⑤ 그 동안의 미약했던 자매교회 관계를 확고히 했으며 본 교회와 자매교회와의 깊은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 및 강화해 나아갈 것을 협의하였다.

⑥ 본 교회에서 해외로 나가는 교우들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는 해외어주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이외에도 외국선교기관으로는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트리니티신학교(Trinity Theological Seminary)와 무디성경학원(Moody Bible Institute)과 해외선교연구센터(Oversea Ministry Studies Center)세곳과 로버트 슬러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수정교회(Crystal Cathedral Church)를 방문하여 미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트리니티신학교와 무디성경학원에서는 선교학자인 케인교수(J. Herbert Kane)와 그의 여러 교수들을 만나서 선교협의를 하였고, 귀중한 선교자료들을 얻었다. 해외선교연구센터에서는 선교사들의 안식년 기간동안 재 훈련하는 곳으로 본 선교본부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안식년 기간 동안의 재 훈련에 관하여 약속을 받았다.

남미지역 (칠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뉴욕에서 칠레 산티아고로 가는 도중 마이아미에서 비자관계로 뜻하지 않게 3일동안 체류하게 됨에 따라 예정보다 늦게 칠레에 도착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유재일선교사님과 그의 가족을 기쁘게 만났고 주일예배를 현지인 교회당을 빌려서 드리는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장년 약 80명 회집) 유선교사님은 한인교회를 시무하면서 현지 장로교단과 더불어 선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현지정부에 교회 사단법인등록을 신청중에 있고 또한 한국선교부도 정식으로 등록 신청하고 있다. 교회자체적으로 현지교아원에 선교사업 및 지원을 펴고 있으면서 대내외적으로 착실히 발전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제 독립적인 성전을 마련키 위해 건축 및 대지를 계약하였다고 하며 특기할 만한 선교사업으로 남미의 다른



(파라과이-김재창선교사 가족)

두 지역 즉 파라과이 및 아르헨티나와 함께 “남미 선교협의회”를 조직하고 앞으로 남미 전체지역에 대한 선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이였다. 우리 일행은(본 교회 김영근 집사께서 사업차 내방하신 관계로 이후 일정은 함께 동행하였음) 이같은 “남미선교협의회의” 강화문제에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고 깊은 의논을 가졌고, 칠레 원주민 장로교단 총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들과(장로교단교회 16곳, 5,000-6,000 명의 장로교세) 선교협의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현지인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한국교회가 지원해야 할 중대성을 느끼고 이 문제를 위해 집중 협의하였다. 칠레한인연합교회와 본 교회는 또한 자매 관계교회를 이번에 수립하여 결연패를 교환하기도 했다.

우리는 칠레에서 눈덮인 안데스산맥을 비행기로 넘어 다음 지역인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도착하였다. 여기서 본 교회 파송 선교사인 김재창목사님과 그의 식구들을 반갑게 만났고 마침 북한선교 집회차 방문한 정석홍목사님과 백인빈장로님도 만났다. 그의 아순시온 한인교회 성도다수를 만났다. 여기서 우리는 역시 본교회와 자매관계 결연패를 전달하였다. 김재창목사님은 지난 6월30일 그동안의 많은 어려움 끝에 위임식 예배를 가진 바 있으며 현재로서는 아순시온시내의 한인교회중(6곳)에서 가장 큰 교회로 발전하고 있다. (장년 220명 회집) 또한 현지 원주민인 마카(MAKA)족에 대한 선교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침례교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인 고광철선교사가 선교활동을 79년 11월부터 시작하여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백성룡 선교사님이 계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하였다. 백선교사님은 재아중앙교회(장년 250명 회집)와 한국인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교포복음화와 그들에 대한 영적지도 및

현지 사회사업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셨다. 그리고 재아중앙교회의 당회원들과 같이 선교사업에 관해 본 교회와의 협력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기탄없는 대화를 나누었고 계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현지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는 한국인 교포 중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으로 초청하여 훈련시킨 후 다시 파송하는 문제등을 의논하였다. 재아중앙교회와도 자매결연 관계를 맺은 바 있으므로 이를 더욱 유대강화할 것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남미지역에 대한 결론적으로 몇가지 요약해 본다면,

① 이 지역에 대한 교포들의 증가 추세가 앞으로 계속 전망되므로 교포복음화에 모국교회와의 계속 협력을 통해 이루어나가야 하며 특히 3군데(칠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한인교회가 중심지가 되어야 할 것을 다짐하였다.

② 이를 위하여 본 교회와 각기 3지역이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③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서는 세군데를 연합하는 “남미선교협의회의”를 이미 조직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미지역 전체에 대한 선교활동의 공동전선을 펼 계획이다.

유럽지역 (서독·화란·벨기에·프랑스·스페인·스위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나 21시간 35분 동안의 장기 비행기 여정끝에 드디어 우리 일행은 서독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여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나오신 육호기선교사의 사모님을 반갑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유럽복음화대회를 방금 마치고 화란으로 건너가신 김창인목사님과 이종윤목사님으로부터 건너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독에서 하룻밤을 자고 육선교사님과는 후에 올라오는 길에 다시 만나뵙기로 하고 아쉬운 작별을 하고 우리 일행은 다시 화란 암스텔담으로 날아갔다. 이국땅에서 우리 전체 일행은 기쁘게 서로 상봉을 하여 그길로 단숨에 스페인을 향해 승용차를 빌려타고 유럽여행길에 오르게 되었다. 이제까지 비행기 여행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경조차 할 수가 없었으나 육로로 자동차 여행을 하니깐 조금은 피곤하지만 경제적으로 절약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세히 바깥 풍경을 볼 수 있어 더욱 좋았다. 유



(칠레의 유재일선교사가 고아원을 방문하고 고아들을 위로하며 기념품을 주고 있는 모습)

럽은 가도 가도 끝없는 평원이었다. 특히 프랑스에는 간혹 옛날 봉건영주인 제후가 다스렸던 옛 성(城)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마침내 3일 만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Barcelona)에 도착하여 원래 계획이었던 교회설립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사람을 만났다.

스페인에는 비교적 다른 곳보다 한인교포가 적게 살아 현재 약 300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 교포들의 직종은 주로 태권도사범, 병아리감별사, 무역상사직원 및 유학생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이미 교회가 1980년 12월에 세워져 현재 20-30명 정도의 교포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고, 1981년 8월부터는 또 한 군데에 순복음교단의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교회를 다시 설립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 예정지인 스위스로 향하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가인 요한·칼빈(John Calvin)의 대학 및 기념관 그리고 기념교회(1592년 설립한 것)를 방문하여 당시의 종교개혁의 의지로 다스나마 맛볼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 그리고 세계 선교대회를 자주 열었던 로잔드를 거쳐 알프스산맥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라브리 펠로우십(L'ABRI fellowship)의 프란시스·슈라이어(Francis Schaeffer) 박사님 부부를 찾아갔다.

슈라이어 박사님은 이곳에 유럽의 물질문명과 세속주의 신학에 대항하기 위해 훈련단체를 세우고 세계각지로부터의 훈련생들을 모아놓고 지도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이제 70세로서 암으로 치료중에 계시므로 처음에는 만나뵙기가 어려웠으나 후에 꽤히 저희 일행들을 기쁘게 만나 주셨고, 오랜 시간동안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자리에서 그는 선교하기에 앞서 교회 자신이 먼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입장을 취하여야 하며, 우리의 적(敵)은 자유세계의 세속주의와 공산세계의 유물관 둘다이므로 이들 양자를 동시에 배격, 경계하는 선교정책을 세울 것을 말하였다. 또한 그는 현재 젊은이들을 교육 시킴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세계관, 인생관등의 모든 요소가 그리스도안에서 달라져야 하며 인간의 전 영역에서 그들의 영성(靈性)을 교육시켜야 할 것에 대해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이곳에서 신앙의 생활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1983년도에 한국을 방문해 주실 것을 약속받고 우리는 무척 아쉬운 대화의 여운을 남겨 놓고 작별해야만 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노종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주신 사명 능히 잘 감당해 나가시도록 기도할 뿐이다. 우리는 이어서 스



(서독-육호기선교사가 뷔츠부르크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위스를 출발하여 서독 튜빙겐에서 평신도선교사이고 지금은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중인 박용삼집사님을 만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의논하였다. 금년내에 논문이 통과될 것으로 보며, 본국의 모교회에 오셔서 선교에 관해 여러모로 큰 공헌을 기대주리라 믿고 있다. 집사님께서는 또한 방학중에 아르바이트하는 공장에 나가 틈틈히 외국인에게도 전도하시고 있으며 함께 머물고 있는 독일인 가정에도 큰 감화를 주어 그리스도의 빛된 삶과 한국교회의 자랑스런 면모를 나타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 일행은 튜빙겐에서 나뉘어져야 했다. 김목사님 일행은 박선교사와 만나기 전에 우리를 튜빙겐에 남겨두시고 바쁘게 뿔기대로 올라가셨고 우리는 따로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비스바덴의 육호기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주일예배를 뷔츠부르크, 바스마덴, 그리고 하우지역 3군데 있는 각기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연이어 드리고 또한 성도들을 만났다. 상기(上記) 세 곳을 연결하는 거리 약 600 km를 매주일마다 육목사님께서 승용차로 달려 예배를 인도 해야만 했다. 또한 우리는 육목사님이 계약한 수양관을 방문하였고(전에는 병원으로 사용했던 곳) 그의 선교계획을 들을 수 있었다. 이어서 우리는 로마에 들려 하루밤을 지내면서 카이로에 가기 위해 머무는 동안에 기독교 유적지를 관광하면서 또 다시 새로운 각오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성 베드로사원, 박물관, 콜롬세움(원형경기장), 카타콤(지하교회)등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당시의 기독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불과 10일 동안에 유럽의 13지역(5개국)을 바쁘게 여행하고 다음 방문지인 카이로를 향해 출발했다.



(평신도 선교사로 일본에 나간 유병세집사(의사)가 병원 대합실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

유럽지역에 대한 선교대책을 요약해보면

① 유럽사회의 대부분은 현재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 물질문명과 세속주의의 영향이 이미 교회내에 깊이 침투했으므로 자유화 된지 오래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한국교회로부터의 복음이 역수출되어야겠다.

②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럽에 파송하는 앞으로의 선교사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현지인들보다 지적·교육적 수준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여 훈련시켜 파송함이 가한 줄 안다.

③ 유럽의 현재 자유화 물결이 한국사회에 이미 침투해 오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경계와 대비를 서둘러서 진리 안에서 하나로 뭉쳐 영적인 면에서 안일과 나태에 빠지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이집트·이스라엘)

로마를 거쳐 이집트에 당도한 일자는 8월 25일이었다. 카이로공항에서 마중나오신 이준교선교사, 내외분과 고 이연호선교사 사모님 김진숙전도사 및 그의 여러 성도들을 반갑게 만났다. 사막과 먼지로 건조한 나라 이집트 카이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좌우로 향아리 등을 굽는 연기로 더욱 우리의 호흡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일년내내 비가 온다해도 불과 몇mm 안되며 거의 일년동안 뜨거운 열기와 불어오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특히 2월~4월까지의 길은 황사현상)등으로 인체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곤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뭉클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카이로 한인연합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비롯하여 애굽인 현지

교회 및 기관들을 방문하여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 선교협의를 가짐으로서 한국교회가 이집트복음화를 위하여 무엇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특히 이곳에서도 목회자 양성이 부족함으로 현지 지도자를 양성함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깊은 의논을 하였고 애굽의 소외된 불쌍한 거주민들(예를 들어 자이툰에 있는 넝마주이촌)에 대한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협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애굽에도 한국인 회사의 진출이 이제는 성공적으로 인정을 받게 됨으로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라서 이들 교포들에 대한 영적인 지도 또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이준교선교사와 협의한 내용들로서 우선 이곳에 선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① 현지 애굽인 교회를 통한 선교지원과 ② 현지 목회자를 물질적으로 돕는 것과 ③ 사회사업기관을 통한 방법과 ④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지원하는 방법등이 있으며 앞으로의 선교계획으로는 ① 현지인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것과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 ② 현지 교회와 본국의 교회들과 자매관계를 수립하여 선교지원하는 문제와 ③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여 아프리카 전역에 대한 선교계획을 차후 순방을 통해서 수립하여 대책을 세우는 계획 등에 대해서 의논하였다. 아울러 현재 선교의 실제 애로점에 대한 기도사항으로 ① 노동허가 받는 문제 ② 언어의 숙달 ③ 건강관리의 문제 ④ 무질서한 교통속에서의 신변안전 문제등이라고 한다.

이상의 4가지 사항에 대하여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시기를 바란다. 우리 일행은 카이로에서 다음 여행지인 인도가는 비행기를 예약하려 했으나 어려운 가운데서 다행히 10일 후에 떠나는 비행기를 간신히 예약해 두고 그간에 머무는 기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므로 예정에도 없던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예루살렘 성지는 카이로에서 불과 1시간 30분 남짓하는 비행거리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카이로 한인교회 교우 2가정 식구와 함께 모두 11명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성지순례에 대해 자세히 쓸 여백이 없고 그저 방문할 수 있게 되는데 대해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후에 교회 보고를 위해 자세한 슬라이드를 찍어 두었다. (물론 다른 선교지역도 모두 슬라이드화 시켜서 보관하고 있다.)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 대한 것을 요약해 보면
① 이 지역은 주로 강력한 도전세력인 회교권이므로

문호가 점차 좁혀지고 있으므로 문이 닫혀지기 전에 선교사업에 보다 확장하여야 하며 ② 그 방법중의 하나로 현지인 교회 및 지도자들과 선교협력 방안을 폭넓게 구축해 놓아야 할 것으로 본다. ③ 또한 아프리카 전역에 대한 (40여개국을 넘을 것으로 봄) 자세한 선교정보를 속히 입수하여 이들에 대한 선교사업을 보다 확대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인도지역

카이로에서부터 약 11시간에 걸쳐 인도 국제공항인 델리에 도착한 것은 9월 6일 새벽 5시 40분경이었다. 35℃에서 40℃의 무더운 열기를 받으며 델리에 내려자마자 우리의 목적지인 캐시미르지방의 스리나가르(Srinagar)까지 가는 국내선 비행기를 예약하려 했더니 만원이었다. 따라서 하는 수 없이 다음 비행기를 간신히 예약을 해놓고 그 무더운 공항 로비에서 기다렸다가 드디어 스리나가르 가는 비행기를 탔다. 약 1시간 20분 후에 목적지에 도착하니 교회가 파송한 엘리야 겔간선교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 인도 체류 일정이 2일밖에 없었으므로 우리는 사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교지들을 돌아볼 수는 없었으나 겔간선교사와 그의 가족일행을 만날 수 있었으며 그와 더불어 현재의 선교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한 협의를 할 수가 있었다.

그는 현재 캐시미르지방 중 7개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중 카길(Kargil)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47개의 마을(1마을당 10세대로부터 100세대까지 살고 있음)이 있으며 주로 회교권 지역이라고 한다. 따라서 복음에 대하여 매우 거부적이고 반발이 심해 다양한 선교방법을 구사할 계획인데

예를 든다면 ① 선교센터를 건립하여 ② 농업기술을 가르치면서 선교하고 ③ 마을문고 설치를 통한 선교와 ④ 약국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본 교회의 지원이 요청된다고 했다. 기도요망 사항으로는 ① 그 넓은 선교지역을 지금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므로 반드시 좋은 조력자가 필요하며 ② 오랜동안 선교지를 수시로 여행해야 하므로 이에 건강관리 문제와 경비 조달이 많이 요구되며 ③ 협력하고 있는 선교단체인 캐시미르복음연맹(Kashmir Evangelical Fellowship)의 선교사업을 위하여 ④ 현지 언어인 프리그어(Purig)로 성



(인도의 엘리야 겔간선교사의 가족-뒷열 좌측 김영휘 목사, 우측 최석주장로. 그 앞이 엘리야 겔간 선교사)

경을 번역하는 문제(현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완료되었음)와 ⑤ 개인적으로 어머니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하였다. 인도는 다양한 언어와 많은 방언과 여러 민족을 포함한 나라. 아니 나라이기 보다는 한 대륙과 같으므로 인도에 대한 별도의 선교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교회가 아직 이 지역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 같으나 인도야말로 복음의 황금어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선교경비면에서 어느 지역보다 훨씬 덜 투자하고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어 한국교회의 많은 진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남아시아지역

스리나가르에서 다시 델리공항으로 와서 지루하고 오랜 출국 수속끝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피곤하고 좀 지친 여정길에 올랐으나 그래도 한국과 거리가 점점 단축된다고 생각하니 한편 기쁘기도 하였다. 사실 두달 이상이나 모국을 떠나 그것도 쉼새없이 2-3일만에 빠르게 다른 지역을 계속 돌아간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아 너무 무리한 여행코스인것 같았다. 마침내 서만수선교사와 정영옥전도사를 기쁘게 만나뵈고 다음 여행지인 호주와 일본에 대한 비자를 얻기 위해 한 주일가량 자카르타에 머물 계획을 세우면서 선교협의를 하였다.

인도네시아 선교현황을 요약하면 ① 자카르타 한인교회를 지무하면서 ② 27군대의 오지사역자를 파송하여 열매를 거두고 있으며 ③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계속 머무르면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인의 영주권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신청했는

데 (현재 650명의 외국선교사가 신청중에 있으나 그 중 1-2명에게 밖에 허락이 안된다고 함)이 문제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기도가 요청된다고 하였다. (이 문제는 9월 26일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로 서만수선교사에게 유일한 단 하나의 영주권이 허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선교의 문호가 점차적으로 닫혀가고 있는 상황에 있다. 기왕에 나가 계신 선교사를 위하여 우리는 이전보다 몇 배이상의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호주와 일본의 비자신청을 노력했으나 시간이 너무나 지연되므로 하는 수 없이 비자를 받지 못해 우리의 방문계획을 취소하고 홍콩에서 하루 머물고 (홍콩만선교사님이 치료차 본국에 계시므로) 마침내 68일만에 그림던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다.

호주와 일본을 방문치 못한 데 대해 매우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김태호선교사님과 유병세선교사님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홍콩에는 제가 작년에 1달 가량 머문적이 있으므로 또한 자세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지면에서는 생략한다. (충현지 1980년도 4월호 참조)

결론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선교로서는 ① 같은 아시아인으로서는 한국교회 선교사의 진출이 비교적 서양인보다 용이하므로 보다 많은 역점이 요구되며 ② 공산주의의 위협하에 있는 지역이므로 우리는 공산권 선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홍콩지역을 우리가 지금 선교활동의 거점으로 잡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며 이 지역을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다.

전체 결론적으로 나는 이 자리에서 오늘과 앞으로 오는 세대에 대한 선교전략에 대해서 잠시 몇마디 쓰

고 끝내고자 한다.

아무췌록 이 마지막 결론이 관심있는 분들에게 다 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

● 결론-오늘과 미래의 선교전략

매사가 그러하지만 선교사업에 있어서도 향후 10년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지를 예상에 두고 선교전략을 계획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단기적인 안목을 버리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의 선교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나는 미래 예언가는 못되지만 선교적 안목에서 이를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1) 세계 흐름의 방향면에서

세계를 사상과 주의를 각기 달리하는 양 진영으로 나눌 수 있으나 그보다도 양 진영의 공동관심사는 성취보다도 성취방법은 달리하여도 물질문명의 발달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할 때 한 마디로 후진사회와 선진사회로 양 대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양 사회의 흐름의 대표적인 축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후진사회에서는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하여 사상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워 누구에게도 어떤 면에서도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힘을 기울여 나가려는 추세이고, 한때 선진사회에서는 풍요한 물질문명과 산업사회로 말미암아 일종의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향락내지는 타락화로 치닫고 있다. 이상의 추세들이 기독교 선교사업의 집중 방향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즉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는 후진사회(주로 아시아,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 소위 제3세계지역)에서도 서양의 선교사들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며 더욱 나아가 있던 선교사들을 내쫓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해서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형적으로 해오던 목사 선교사만 파송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진지역의 개발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평신도선교사의 양성 및 파송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산업사회의 고도로 발달된 선진사회에 대해서는 그들의 물질로만 채울 수 없는 영적기갈과 공백을 하나님의 말씀(암8:11)으로 채워야 하는데 산업사회에 대한 복음전달 방법에 대해 깊이 연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국내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두가지 면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국가 경제면에서



(인도네시아에 나간 서만수선교사가 원주민에게 성경을 주고 있다)

인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경제적으로 풍요한 상황이 못되므로 선교정책상으로도 우리는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선교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선교비가 가장 적게 들고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어느 곳인가를 조사하여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답사를 통한 후 그같은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로 교회의 해외 선교역사면에서 볼 때 한국교회가 지금은 선교의 관심을 크게 가지지만 우리에게선 선교의 역사나 경험면에서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볼 때 우리는 보다 냉정한 생각을 가지고 좀더 미래를 바라보며,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고 현재로는 복음적이고 경험

이 풍부한 외국선교기관과의 유대강화가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특히 선교후보자의 사전훈련면에서 우위는 외국의 좋은 선교기관과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통하는 것이 좋겠다.

(3)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도다”하신 말씀처럼 한국교회는 이제 바야흐로 전 세계를 주님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영적으로 추수할 때요 수확의 계절인 것이다. 이때를 놓치면 겨울이 오듯이 머지않아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국교회는 자다가 깬 때요, 일어나 수확하기 위해 나설 때이다. (사 60: 1-3)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이나, 한 지역 또는 어느 공장, 캠퍼스, 군기지, 크게는 한 나라 전체에 대한 비전을 가지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온 세계에 있으며 그것은 또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상명령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모든 나라에서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모든 주요 결정은 온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교우기업소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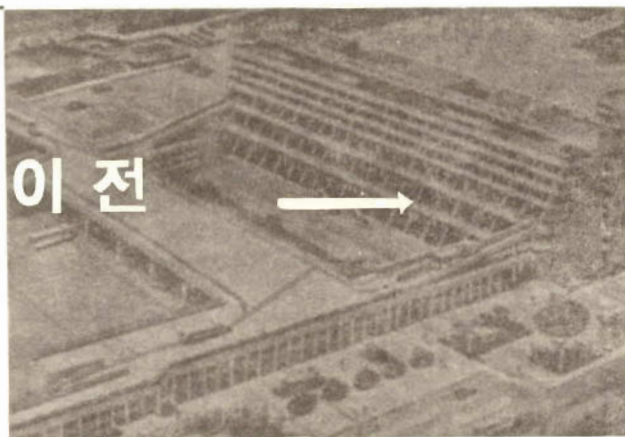
창업 48년의 신용



남 문 당 이 전

전화 : 599-3776, 593-0192

金正泰 집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본관 2층 5호로 이전



〈지도 / 오치용목사〉



〈부장 / 남선우집사〉

1979년에 신설

계속적인 발전과 확신속에

지난 1978년 해외선교 10주년을 기념하며 열렸던 제 1 회 총헌선교대회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선교사 파송을 위해 선교사 양성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면서 1979년도에 주일학교에 「선교부」를 신설, 선교사양성을 위한 기초작업과 평신도선교사 지망생들에 대한 기본교육 및 훈련을 전담키로 하고 발족되었다.

초창기에는 중·고·대·청·장년반으로 나누어 선교에 관련된 과목을 1, 2 학기로 나누어 당시 지도였던 김영희 전도사가 강의를 하여 왔다.

어학강좌·선교 셀그룹·지역 반등 밝은 전망 가운데 발전

이제 만 3년이 지나면서 선교부는 여러면에서 발전, 이제는 선교사 양성을 위한 기초적인 문제들을 하나 하나 정리하고 있다. 특히 가장 필수적으로 생각되는 「어학강좌」를 개설하여 중국어, 영어반이 개설 운영되고 있는 점과 학생자치활동으로 「선교 셀 (Mission Cell) 그룹」을 형성하여 관계있는 분야끼리 모여 교제와 정보교환을 통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하고 있는 점, 또한 대학·청년반에 「지역반」을 두고 각 지역별로 할당하여 선교지 (Mission Field)에 대한 연구, 발표 등을 통해 선교지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는 점과, 해외이주반은 이주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선교에 대한 관심과 해외에서의 신앙지도 등을 통해 간접적인 선교 활동을 펴고 있는 점들은 무척 발전적이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매년 2 학기, 3 년과정 5 개 반으로 나누어 교육

매주 금·토·일요일에 모이는 선교부는 ① 중·고등반 (토, 오후 2~4 시) ② 대학·청년반 (정규과정 / 금, 오후 7~9 시; 지역반 / 화, 오후 7~9 시; 연구반 / 토, 오후 4~6 시) ③ 장년반 (일, 오후 1 시 30분~3 시 30분) 으로 모여 3 년간으로 짜여진 교과과정에 의해 공부를 한다.

1* 교과과정 (3 년)

연차	학기	전 공 과 목	공동과목 (3년)
1	1	선교신학· 선교사의 자질	성경연구 선교역사 선교지역연구
	2	전도법· 성경적 교회관	
2	1	제자훈련· 문화인류학	"
	2	교회생활· 현대문화와 기독교	
3	1	초문화전도법· 비교종교학	"
	2	이단종파연구· 선교전략	

이외에도 ④ 어학반 (중국어반 / 월 7 시~8 시 30분, 토 5~7 시; 영어반 (월·화·목·금·토 오후 5 시~6 시 30분) ⑤ 해외이주반 (수시로) 으로 모여 해외선교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도 오치용목사를 중심으로 민족복음화·세계선교가 표어

1982도에는 그동안 선교부 지도를 맡아 수고하시던 김영희목사가 미국으로 유학차 떠나시게 되어 오치용목사가 지도로, 유국남강도사,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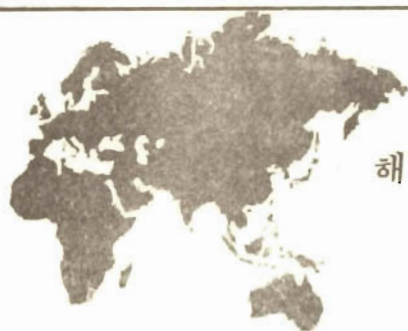
상환전도사가 부지도로 교역진을 정비하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앞장서자」 (행 1:8)는 표어를 가지고 새롭게 출범했다. 또한 부장 남선우집사와 부감 이상현집사, 안윤진권사와 중국어를 가르치시는 이웅집사, 영어를 가르치는 리처드킬 선교사와 임정우집사외에 6명의 교사가 한 마음으로 선교와 선교사 후보생들 양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

총헌교인이면 모두가 참여해야 쌓인 자료정리가 시급

그러나 아직도 아쉬운 점은 이처럼 좋은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으로 새성전으로 나가 「세계선교를 위한 교회」로 발돋움하는 점에서 총헌교회 교인이면 모두가 선교부를 거쳐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소양, 선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들을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그동안 강의와 수집된 구하기 어려운 좋은 자료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점들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본다. 주일학교 선교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 「자료실」을 설립, 온갖 자료를 정리, 보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 8:7)는 약속의 말씀과 같이 점점 발전하여 나가고 또한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도진과 교사들을 보면서 큰 확신과 밝은 내일을 볼 수 있었다.

(*)



해외선교지 · 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그동안에도 오지 개척중 장년 23명, 어린이 5명의 결신자를 주시고 27명이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1982년부터 선교부 산하 한인교회에서 생활비를 전담키로 하여 생활비가 자립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1982년도 전보약호 및 사서함 사용연장을 마치고 면세수속 및 외국인 주거등록을 연장수속 중이오니 이 일이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관 신축 기금도 계속 모금 중이오니 선교사업비가 더욱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 홍콩-홍종만 선교사

신병이 더욱 악화되어 현재 귀국하시어 요양중에 계시며 우편과 인편, 전화로 현지의 일을 돌보고 계시는 목사님께 무엇보다도 건강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인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이만열 목사님, 마카오 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엄영택 두 분 목사님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홍콩 한인교회의 선교활동이 활발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큰 열매가 맺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고 홍종만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 애 굽-이준교 선교사

카이로 한국학교가 개교 2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교아원과 님마주이 청소년들을 위한 구제금을 전달하였사오니 그들이 이를 통해 하나님을 받

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애굽교회 및 신학교, 성서공회 임원들과 교제하며 선교를 위한 대담을 나누고 있사오니 더욱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서 독-육호기 선교사

공산권 선교 및 유럽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시고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 호 주-김태현 선교사

12월 25-28일 시스프레이에서의 수양회가 은혜롭게 열리고 새로이 한인교회에서 봉사할 집사님 4분을 선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히 선원선교 활동중 소련선박에 증선하여 선장을 전도하고 중공선원과 일본인 선원을 전도하여 그들에게서 감사의 편지까지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주셔서 외항선 선교활동이 활발하고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 아르헨티나-백성룡 선교사

새해 예산이 수립되고 북한선교회에서의 계속적인 지원결정을 감사합니다. 원주민 선교를 위해 원주민 대학생 및 청년들을 주축으로 선교단을 조직 중이오니 훌륭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한국의 삼복더위 같은 날씨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 파라과이-김재창 선교사

현지의 어지러운 정치와 경제

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지교회의 부흥과 선교사님 가족이 더욱 건강하며 특히 자녀들의 학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 칠 레-유재일 선교사

교포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고 힘쓰고 있사오니 한인교회에 성령충만을 허락하시고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뜨거운 기도와 풍성한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 인 도-엘리아 겔간 선교사

라다크 수르 계곡의 여행을 통하여 많은 복음이 전파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루어신 새가정을 통하여 더욱 선교활동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 일 본-유병세 평신도선교사

입원환자의 병실전도로 점점 많은 결신자가 배출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광미교회에서 부인 성경공부반을 계속 인도 중이신 사모님과 함께 선교사님 영육의 더욱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 서 독-박용삼 평신도선교사

논문작성이 마칠기까지 인도하여주시를 감사드립니다. 제출된 논문의 심사과 통과를 지켜주시고 선교자료수집과 선교연구에 더욱 많은 결실을 주옵소서.



12월의 교우동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10:24)”

새교우

- 새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1 지구

미아8구역 노명환
장동구역 전혜선
번동구역 최정화
보문구역 정운애
성북구역 이상희

대치구역 이승계
청실구역 전종수
진삼구역 김세중
삼성구역 하덕상
영동구역 박정자
삼성구역 최현희
청담2구역 임호광
응봉구역 차원재
대치구역 이세열
정담2구역 조영길

● 5 지구

봉천1구역 왕인숙
필동7구역 최말남
방배1구역 김윤심
주공3구역 황은숙
안양구역 최정일

● 6 지구

화곡2구역 김경태
개봉구역 최명옥
화곡4구역 전선봉
북인천구역 서성태

● 3 지구

문정구역 노정숙
왕십리구역 지경옥
문정구역 조정진
신당1구역 김광수
시영1구역 김영옥
시영2구역 장세웅
신당5구역 강금옥

● 4 지구

개나리구역 김두영
응봉구역 주남순
선정1구역 이재원
옥수1구역 안익봉
성남구역 김희심

● 7 지구

홍은2구역 조향숙
서대2구역 오순옥
중무2구역 박형의
송인1구역 김인주
송인1구역 김장술
연지구역 박영철
중신구역 장예숙
장신2구역 조영애
명륜2구역 이규한
동건구역 한영자
오장1구역 김수길
오장구역 권영학
율지2구역 조효숙
중무2구역 전계숙

결혼

- 이형수군(이봉성장로 문명숙권사 아들)과 김은숙양(심방위 1 지구 담당여전도사) 8 일
- 한석동군(안양구역)과 하천자양(하두숙집사 정순오권사 딸) 9 일
- 박종은양(박근준집사 이진일권사 딸) 9 일
- 송효중군(응암구역)과 남은희양(유년부교사) 10 일
- 박창식군(정진선권찰 아들과 정주아양(새신자부) 15 일
- 김성수군(김방진장로 한정숙권사 아들)과 김영미양(김봉선권사 딸) 17 일
- 이정택군(돈암구역)과 조숙임양(구의구역) 17 일
- 장철환군(정석순씨 김금순집사 아들)과 김영숙양(고동부교사) 18 일
- 김준표군과 황진희양 18 일
- 김영주군(김방선집사 동생)과 심금숙양(최옥금씨 딸) 21 일
- 박명선양(주교교사 신림동구역) 29 일

별세

박창민권사(화곡구역) 11월 30 일
김은조씨(등촌2구역) 1 일
여정현집사(삼양구역) 2 일
박순녀씨(이태영선생 모친) 4 일
김웅씨(신봉일권사 부군) 4 일
홍석근씨(길음2구역) 10 일
한신희집사(임순심권사부군) 10 일
이윤오씨(강승열집사 부군) 17 일
이박지씨(용문구역) 18 일
이희종씨(목동구역 임정순씨부군) 21 일

교역자 · 장로동정

김영휘목사 - 도미유학차 출국
신영대장로 - 개인사정으로 휴직
김종석장로 - 개인사정으로 휴직

이민

정옥순집사(서강구역) - 미국
한은화(잠실1-3구역) - 미국
김규성(신림2구역) - 미국
조상주(신촌구역) - 미국

새로 나온 교우는

= 장년새신자부에서 공부를 합시다 =

*...새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는 1,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장년새신자 1부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학습」을 받은 사람은 장년새신자 2부에 가서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 수료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 장년새신자부의 시간은 각 12시로, 1부는 새신자부실에서, 2부는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신년 기도회 성황

기독교 지도자협, 교회협(敎會協)서

새해를 맞이하여 기독교계의 신년하례회가 각 기관별로 열렸다.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는 1월 7일 오전 8시 엠버서더 호텔에서 조찬 기도회를 갖고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줄 것을 간구했다.

오경린목사 사회로 진행된 동 기도회는 최성원 목사의 기도, 남서울중앙교회 성가대의 찬양, 정진경목사가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목사는 설교에서 「우리 앞에는 남북의 통일, 정의의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 정착화, 고도의 번영이라는 큰 목표들이 놓여 있다」고 말하고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양심적이고 투쟁적이고 이 땅을 사랑하는 정신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도 4일 오후 2시 서울 YMCA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신년하례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남북통일 염원 신년기도회

한국보수교단 기독교청장년협의회에서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신년기도회가 지난 1월 1일 오후 2시 임진각 자유위 다리 앞에서 서울지역 회원 1천 2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기도회는 회장 강준원장로 사회로 진행. 유시수장로의 기도, 성경 삼상 7 장 10절~12절 봉독 후 피종진목사(남서울중앙교회 지무)가 「에벤에셀」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이후 북한동포와 통일,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교계와 교회를 위하여 특별기도 순서를 가졌으며, 전두환대통령, UN사무총장,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낭독했다.

아울러 결의문도 채택했는데 「보수신앙을 파수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정신을 발휘하며 이 민족의 복음화에 기수가 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찬신문

명성그룹에서 인수

교계지의 하나인 「크리스찬신문」이 82년 1월 1일자로 명성그룹의 김철호회장에게 운영권이 넘어갔다.

1960년 7월에 창간된 동 신문은 69년 9월 한국

가정문서 선교회가 인수하여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공헌해 왔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문선명집단 대책위원회는 최근 크리스찬신문을 인수한 명성그룹에 대해 문선명집단과의 관련성 여부를 계속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부산 외국어대학 설립

성창기업 정태성 장로가

성창기업 회장인 정태성장로가 부산에 외국어대학을 설립했다.

금년부터 신입생을 모집케 된 동 대학은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른 교육을 실시케 된다.

학과는 영어학과를 비롯하여 독어학과, 불어학과, 일어학과, 중국어학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어학과와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등 520명을 모집케 된다.

제 3 회 기독교 교육세미나

총회교육부 주최로

총회교육부(부장 배순조목사)가 주관하는 제 3회 전국 기독교 교육세미나가 2월 2일부터 3일까지 총신대학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교육세미나의 주요 발표논문은 다음과 같다.

- ▲ 현행 계단공과의 교과과정 해설 및 비판(정정숙), ▲ 청소년 성경연구 교재의 해설 및 대안(엄도성), ▲ 계절성경학교 교재의 해설 및 대안(임승원), ▲ 평신도 성경연구 교재의 종합분석(신세원), ▲ 구역공과의 교육내용과 해설 및 대안(김종석), ▲ 새신자 교육내용과 지침해설(조해수), ▲ 새 계단공과 전체 교육과정 해설(김득룡), ▲ 구역성경연구의 지침해설(김희보), ▲ 신약성경 연구의 지침해설(전성수)

여전도회 수련회

2월 9~11일 총신대학에서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교육부 주최로 제 4회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가 2월 9일~11일 총신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된다.

△ 개회예배(김창인목사), △ 성경공부(박일웅목사), △ 선교 백주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발전과 사명, 「쟁성구 목사」, △ 신비주의란? (김재권목사), △ 현 사회속에서의 청소년교육(김진택)

* 1982년 - 무엇이 달라졌나 *

● 새해의 성구 - 시편 118편 ●

교회는 1982년의 성구로 시편 118편을 정했다. 또한 찬송은 새찬송가 110장을 정하고 이 성경을 늘 묵상하고 늘 찬송하도록 했다.

이는 198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는 말씀이다.

한편 심방위원회에서도 금년도 대

심방 표어를 시편 118편 6절 '여호와 내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로 정하고 주세 찬송을 새찬송가 110장으로 정했다.

● 성례식 - 1년에 4회 ●

교회는 금년부터 성례식을 1년에 4차례 하기로 결정했다. 교회의 성례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그리스도의 수난을 기념하며 새롭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

교회는 지금까지 1년에 봄과 가을 2차례 실시했으나 점점 약해져가는 마지막 세대에 좀 더 하나님앞에서 바른 자세로 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뜻으로 1년에 4차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아세례는 낮에 베풀기로

또한 지금까지 성례식 기간중 금요일 저녁 세례식때 함께 가진 유아 세례식을 금년부터는 유아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유아세례를 베풀기로 했다.

● 성가지휘자 새로 부임 ●

● 제1성가대-이관섭 선생

제1성가대 지휘로 수고하던 박영근 선생이 사임하고 새로 이관섭 선생이 부임했다.

이관섭 선생은 연세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해방교회, 향린교회, 영락교회등과 여러 합창단의 지휘자로 수고하셨고 우리 교회로 오시기

전에는 혜성교회 성가대 지휘를 맡아 수고하셨다.

● 제2성가대-

이병직 선생

제2성가대 지휘자 정국진 집사의 사임으로 제2성가대도 지휘에 이

● 예산행정 단일화 ●

교회는 지난해 주일학교 예산의 단일화에 이어 금년에는 교회 전체의 예산행정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 지회에 회계를 두어 회계정리를 하던 것을 없애고 교회 단일 회계에 의해 회계가 통일되고 각 지회에서는 연초 계획된 예산안에 의거 입·출금전표를 사용하여 예산사용을 하도록 했다. 따라서 각 지회의 회계는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됐다.

● 장로 20명 세우기로 ●

교회는 금년에 장로 20명을 새로 세우기로 했다. 각기관 업무량을 감당하며 현 규모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이 20명의 장로를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투표의 실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교역자회와 당회에서 선정수에 대한 일정수를 배수공천하여 이를 사전에 알리고 투표하기로 했다.

● 사무국을 총무국으로 ●

교회는 당회산하 기구의 사무국을 총무국으로 승격하고 제직회의 영선부와 서무부를 총무국으로 흡수하며 교회내의 전체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 관 섭 선생〉



〈이 병 직 선생〉

병직 선생이 부임했다.

* 1982년 - 무엇이 달라졌나 *

● 새로 부목사 두분 청빙 ●

금년들어 심방담당 부목사로 이세열, 조영길목사가 심방부에 정복인 여전도사가 새로 오셨다.

이세열목사는 총회신학교 연구원을 졸업후 경남 진주시에 있는 진주교회에서 시무하셨다. 1931년생으로 사모 김원희여사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조영길목사는 총회신학교 연구원을 졸업한 후 서울 내장동교회에서 부목사로, 동대문제일교회에서 담임목사로 계시다가 서울 암사동에서 새생명교회를 개척, 시무하셨다. 사모 임춘혜여사와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정복인 전도사는 총회신학교 연구원을 졸업하고 에덴교회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까지는 왕십리교회 시무전도사로 시무하셨다.

또한 교육부서에는 이원길·김정순·이상환전도사를 각각 중등부 지도 교역자와 대학부, 선교부 부지도 교역자로 임명했다.

● 교육부에- 전도사 3명

김정순전도사는 우리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로 수교하시던 중 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명지대학교의 전도사로 수교하시다가 이번에 대학부 부지도로 오시게 되었다.

이상환전도사는 그동안 고등부교사로 수교하셨고 현재 총회신학교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2학년에 재학중이시다.

이원길전도사는 도성교회, 창신제일교회에서 수교하시던 중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는데 금년 2월에 총회신학교를 졸업하시게 된다.



〈이세열 목사〉



〈조영길 목사〉



〈정복인 전도사〉



〈이원길전도사〉



〈김정순전도사〉



〈이상환전도사〉

● 교회대심방 - 봄에 전체적으로 ●

심방위원회는 금년도 대심방을 금년도 3월초에서 6월 하순까지 전반기에 모두 마치기로 했다.

이는 1년 마지막이 되어서야 심방을 받게 되며 또한 교역자들이 교우들의 가정형편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기에 취해진 조치이다.

또한 매년 70세 이상 되시는 교회의 노인들에 대한 심방을 별도로 하였는데 금년부터는 노인심방과 대심방을 겸하기로 하여 실질적인 대심방은 지난 1월 12일부터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각 구역담당 교역자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 제1 지구 /
장정일목사 김순옥전도사
(부) 최봉호목사 정금숙전도사
- 제2 지구 /
김창근목사 정복인전도사
(부) 오치용목사 장영자전도사
- 제3 지구 /
김하진목사 김용선전도사
(부) 허충목목사 김경성전도사
- 제4 지구 /
조영길목사 최순복전도사

- (부) 최봉호목사 김경성전도사
- 제5 지구 /
김원남목사 현정남전도사
(부) 오치용목사 장영자전도사
- 제6 지구 /
이승근목사 김연이전도사
(부) 조준삼목사 정금숙전도사
- 제7 지구 /
이세열목사 구명신전도사
(부) 최봉호목사 유순화전도사

1982년도

겨울 계절학교 개교

- 지난 1월 18일, 고등부 수양회를 시작으로 -



1982년도 각부 주일학교의 겨울 계절학교가 지난 1월 18~20일 실시한 고등부 수양회를 시작으로 일제히 막을 올렸다. 금번 겨울 수양회는 어린이새신자부를 비롯하여 10개 주일학교가 실시하게 되는데 예상참가인원은 교사 400여명에 학생 2830여명이고 예산은 620만원 정도이다.



〈1월 18일 고등부 동기수양회를 시작으로 겨울 계절학교가 막을 올렸다〉

1982년 주교 각부 계절학교(겨울) 실시계획(안)

구분	구분	어새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산교부	계
회수		제 19 회	제 13 회	제 13 회	제 19 회	제 19 회	제 12 회	제 12 회	제 11 회	제 5 회	제 5 회	
주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사랑은 온유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마음을 새롭게 하자	다시 오실 예수님	믿고 알고 행하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자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제성구		마11:28	고전13:4	마24:44	롬12:1,2	계22:20	엡4:13	갈4:19	골2:6,7	엡4:13	히12:1,2	
주제찬송		590장	사랑은 사랑은	다시오실 예수님	414장	194장	315장	327장	301장	327장	525장	
기간		1982. 2. 1-4	1982. 3. 1, 2	1982. 2. 22-24	1982. 2. 1-4	1982. 2. 1-4	1982. 1. 27-30	1982. 1. 18-20	1982. 2. 15-17	1982. 2. 15-18	1982. 2. 18-20	
학생		90	400	330	400	450	430	260	120	200	150	2,830
교사		30	35	50	70	60	50	20	9	5	27	356
보조교사		2		10	10	10	5	3				40
대외강사										황성수		1
대내강사		김은숙 이전희	김은숙 정소영	박동실 정연희	장정일 안석련 김장근	이양우 김익경	이원길 김양래	김창근 최봉호	오치용 허충욱	이승근	최봉호 박동실	20
인원계		124	437	392	483	522	487	285	131	207	179	3,247

제4회 전국 영아부
교사 수련회 개최

주일학교 영아부는 오는 2월 1, 2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교회 영아부교사를 대상으로 영아부 교사

수련회를 본 교회당에서 갖는다.

매년 전국 교사수련회를 통해 영아부교육의 중요성과 의의, 그 방법 및 내용들을 보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4 번째로 영아부 지도교역자인 정소영전도사가 주강사로 「영아

부 교육은 어떻게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다.

선착순 250명에 한하여 참가비는 1인당 1,000원씩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1982년도

단기수련회 마쳐

지난 1월 4일 주영흠교수의 「성경에 비취 본 이단의 성격」이란 제목의 교역자 및 장로수련회로 막을 올려 12일 교사와 성가대원 수련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주제(성구/고후 4:15, 찬송/새219장)하에 각 분야별로 모인 금

년 수련회에는 특히 4일 저녁부터 6일까지 당회장 김창인목사가 부흥회를 인도하여 연일 성황을 이루었다.

금번 수련회의 특징은 각 분야별로 위원장들이 금년의 운영계획을 밝힌 점이있고 각 분야별 주요 관심사를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강의

교역자 및 장로수련회에는 주영흠교수의 「성경에 비취 본 이단의 성격」, 전호진박사의 「현대 교회의 성장개념과 요소」, 제직 및 권찰수련회에는 배순조목사의 「제직의 임무와 역할」과 구명신전도사의 「구역행정의 실제」를, 교사수련회에는 신성종목사의 「성경적 측면에서 본 제자훈련」, 문창수목사의 「교사의 역할」을, 성가대는 윤영탁목사의 「성가대원의 영적성장」과 이관섭선생의 「한국교회 음악의 현황과 진로」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

성경연구원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이번 수련회에는 각 분야별 모두 포함하여 연인원 7,000여명이 수련회에 참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982년도 단기수련회가 1월 4~12일까지 각 분야 별로 모였다-교사 수련회 시 문창수목사의 강의 시간)

1982년 첫번 성례식 거행

교회는 지난 1월 21~24일에 성례식을 가졌다. 21, 22일의 학습세례문답에 이어 22일 저녁에 세례식과 24일(주일)의 성찬식으로 이어진 금번 성례식은 금년들어 처음 갖게 된 성례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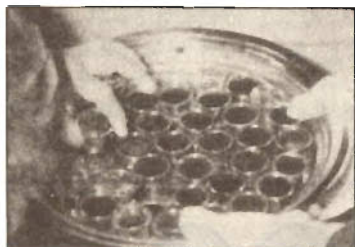
매년 봄과 가을로 나누어 성례식을 실시해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1, 4, 7, 10월에 4 차례 성례식을 갖기로 하고, 그 첫번째를 실시한 것이다.

이처럼 1년에 4 차례 실시함에 따라 그 진행과정을 현실화하여 유아세례는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갖기로 하고 문답공부를 사전에 실시하던 것을 당일 문답하기 전에 가

져 모두가 문답공부를 하고 문답에 참여키로 하였다.

24일 1, 2, 3, 4부 예배시에 있었던 성찬식에 있어서 수찬자는 4, 630명 이었고 이 기간 중 학습·세례·유세·입교·문답자는 303명이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남	여	계
학 습	50	85	135
세 례	40	58	98
유 세	31	22	53
입 교	6	8	14
개 종		3	3
계	127	176	303



(금년들어 첫번째 성례식)

새가정부 2부집회 실시

주일학교 새가정부는 82년부터 2부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신혼부부와 미혼남녀를 위해 개교한 새가정부는 금년들어 4년째가 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동안의 집회시간인 12시에는 맞추기가 어려워 금년부터 2부로 나누어 회집하게 되었다.

집회시간은 1부는 12시, 2부는 오후 2시에 모인다.

선교의 축복과 소망

해 열리는 이 선교특별집회는 「선교의 축복과 소망」이란 주제하에 (주제성구 / 행 1 : 8 ; 주제찬송 / 새62 1장) 지난 1월 27~29일까지 매일 저녁 모였다.

현지인을 초빙하여 현지의 소리를 들으며 선교의 필요성과 우리의 사명을 알아보았고 특강을 통해 선교의 방향, 정책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지인 보고

① 방글라데시의 선교전략적 위치 (숨주리고 버림받는 영혼들)

② 인도네시아 선교전략의 재평가 (넓고도 좁은 이 땅 - 현지인)

③ 8억의 인도, 소외된 어장 (언제까지? - 현지인)

④ 숨겨진 기독교의 대륙 아프리카 (무엇이 문제인가? - 현지인)

• 특 강

① 중공교포선교현황 및 슬라이드보고 - 홍종만목사 (홍콩주재 선교사)

② 한국교회의 선교적 사명 - 전호진박사 (선교학박사 · 아세아연합신학원교수)



또한 오늘 선교주일을 맞아 선교회비작성 및 선교회원을 모집하며 전 교회가 선교를 위한 관심과 결심, 헌신등의 시간을 갖는다.

선교주일에는 매 예배 설교 및 각 부 주교의 예배 및 집회시에 선교를 주제로 설교하고, 해외복음선교회 월례회에는 신성종목사의 특강을 듣고, 저녁예배는 선교찬양예배로 드리게 (설교 / 리처드 킴 선교사) 된다.



해외복음선교회와 주일학교 선교부에서는 1982년도 선교주일을 맞아 선교특별집회를 개최하며 선교주일 특별행사를 실시한다.

해외선교 인구의 저변확대와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

북한선교분과에서

특별 전도대 훈련

전도위원회의 북한 선교분과에서 지난 1월 11~16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동계 특별전도대훈련을 실시했다.

5박 6일 동안 열린 이 훈련은 오전에 성경공부(성박론Ⅱ)과 전도훈련 및 복음전도설교훈련을 저녁 복종회의 기도회로 실시했다. 부

저녁부흥회에는 당회장 김창인목사, 안길용목사(북한선교회 부이사장), 조준상목사(전도위원회 북한선교분과장), 김희관목사(북한선교회 부이사장)가 각각 설교를 하였다.

* 교우기업소개 *

새

벗

정기구독신청 1년 : 20,000원 (1권 : 2,000원) 1년 구독자에게 기념품 증정

기독교백과사전, 주석류 월부 기독교서적
일반교양서적, 시상품, 중고등학교 참고서,
국민학교용 특수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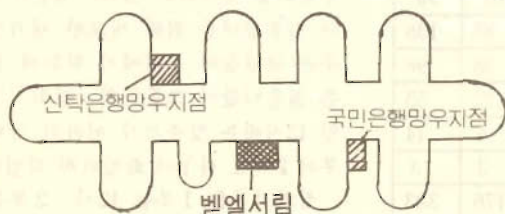
성경
찬송

벤 엘 서 림

● 5,000원 이상 주문시 배달하여 드립니다.

양 종 섭 집사

동대문구 망우2동 488-14
전화 : 432-3141





□ 토막소식 □

- *...교육위원회는 2월 14일 각부 주교에게 학무지도할 계획이다.
- *...어린이새신자부는 2월 한달 동안 신임교사 심방을, 2월 19일에는 교사기도회를 가질 계획이다.
- *...영아부는 2월 8일 교사 기도회를, 23일에는 학부모초청 좌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 *...유치부는 2월 14일 사도신경외우기대회를, 17일에는 교사기도회를, 20일에는 어린이전도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 *...유년부는 2월 한달을 전제 학생심방의 달로 정했고, 2일에는 찬송가 부르기도회를, 4일에는 학부

모초청좌담회를 가지게 된다.

*...초등부는 2월 7일 교사를 위한 특강을, 2월 한달을 학생심방기간으로 정했다.

*...중등부는 2월 14일 학부모·교사·학생 연석좌담회를 갖고, 21일에는 연구수업을 갖는다.

*...고등부는 2월 19일 교사기도회를, 28~3월 1일에는 고3을 위한 수련회를 중현기도원에서 가질 계획이다.

*...청년부는 2월 21일 발표토의를, 20일에는 교회주변의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년새신자 I 부는 2월 21일 찬송가부르기대회를, 26일에는 교사기도회를 가지게 된다.

*...장년새신자 II 부는 2월 14일 세례문답식을, 21일에는 수료 및 세

례식을 가지며, 28일에는 성경암송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산업전도교육부는 2월 10일 교사기도회를, 14일에는 연구수업을, 28일에는 전도훈련을, 21일에는 신앙간증회를 갖는다.

*...선교부는 2월 12일 윤두혁목사님을 강사로 「윌리엄 케리의 선교」란 제목으로 특강을, 21, 28일에는 해외이주자를 위한 강의를 가진다.

□ 인사이동 □

각 종 통 계

1981. 12. 6(매월 첫 주 기준)

1. 교육위원회(주일학교 교사)

① 임 명		산 교 부		홍정옥 여	
영 아 부	이재석 남	② 북 직			
영 아 부	구옥순 여	초 등 부	차의숙 여		
유 년 부	백경란 여	③ 퇴 임			
초 등 부	김영기 남	영 아 부	김승자 여		
초 등 부	박종국 남	초 등 부	마동훈 남		
초 등 부	장희섭 여	초 등 부	심정태 여		
중 등 부	김연수 여	초 등 부	최영미 여		
중 등 부	신미경 여	초 등 부	이현경 여		
중 등 부	김석환 여	초 등 부	송연옥 여		
고 등 부	정현철 남	중 등 부	윤혜옥 여		
고 등 부	김춘권 남	중 등 부	전승훈 남		
대 학 부	정익태 남	중 등 부	김성숙 여		
장새 I 부	소정부 남	산 교 부	유순자 여		
장새 II 부	조남순 여				
노 년 부	이장하 남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 2:15)

구 분		남	여	계		
예 배	주일날	I 부	191	354	총세대수	3,749
		II 부	428	930		
		III 부	371	811		
		IV 부	357	881		
		계	1,347	2,976		
주 일	저 녀	주 일 저 녀	175	361	신	교인
		삼 일 저 녀	158	336		
		어린이새신자부	31	38		
		영 아 부	188	145		
		유 치 부	140	144		
일 학	부	유 년 부	196	238	급	세례
		초 등 부	211	191		
		중 등 부	155	166		
		고 등 부	134	153		
		대 학 부	70	72		
교	학	청 년 부	56	98	인	입교
		장 새 I 부	44	107		
		장 새 II 부	16	52		
		장 년 부	25	230		
		노 년 부	36	107		
학	생	산 업 교 육 부	19	89	창	원입
		선 교 부	17	39		
		새 가 정 부	22	36		
		합	3,040	5,578		
		계	3,040	5,578		

1 월의 행사

* 교회 *

- 1 일 / 신년예배
3 일 / 정기제직회
4 - 12 일 / 1982년도 단기수련회 (4-6일/부흥회)
8 일 / 교회전체 철야기도회
21 - 24 일 / 1982년도 I분기 성례식 (21, 22일/학습세례문답식)
22일 / 세례식
24일 / 성찬식
31일 / 선교주일

* 전도위원회 *

- 10일 / 남전도회 월례회
17일 / 여전도회 월례회 ·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
24일 / 전도위원회 월례회
31일 / 해외복음선교회 월례회

* 교육위원회 *

- 18 - 20 일 / 고등부 동기수양회
26일 / 교육위원회 월례회

* 심방위원회 *

- 12일 / 노인심방실시
10일 / 권사회 월례회
17일 / 심방위원회 월례회
24일 / 구역권찬회 월례회

* 재정위원회 *

- 3 · 17일 / 재정위원회 월례회

* 자산관리위원회 *

- 17일 / 자산관리위원회 월례회

* 건축위원회 *

- 26일 / 건축위원회 월례회

* 출판국 *

- 17일 / 출판국 월례회
31일 / 월간충현 1월호 발간

편집하고 나서

*.....금년이 월간충현이 창간된 지 만 10년이 된다. 이모양 저모양의 우여곡절 속에서 이나마 발전하게 된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회내의 기관지이면서도 나름대로의 개성을 지니도록 하고 싶은 것이 편집자의 바람이지만 역시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를 위한 노력은 계속해 독특한 개성을 지닌 것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특히 10년, 지령 100호, 새 성전 이주 등을 앞에 두고 월간 충현 편집실에서도 이에 대한 발전책을 계속 강구중이다.

*...새해에는 두가지 측면에서 심도있는 내용을 다루려고 한다. 한가지는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가 되는 「가정」을 주제로한 제 문제를 성경적인 입장에서 조명해 보는 일과 또 하나는 크리스찬 삶의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분야별로 다루어 바른 신앙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신년호를 신년호답게 꾸미려고 노력했는데 우선 발행일자가 늦어져서 무척 죄송하기 그지없다. 배순조목사님이 단기수련회 기간중 강의해 준 내용이 전 교인에게 큰 유익을 주리라고 생각하여 요약, 정리하여 소개한다. 많은 말씀중 우리의 신앙, 정신적 자세에 관한 면만을 요약 정리하였다. 1년을 살아가며 봉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새해 새 아침에— 조현명장로님의 말씀과 같이 금년 한 해를 모두가 「그리스도의 참된 편지」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충현 편집위원 □

위원장 / 조 현 명
편집위원 /

김 하 진	조 선 근
김 차 생	손 경 수
오 태 용	김 종 주
김 정 태	이 형 수

1982년 1월호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제10권 제1호

통권 제95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2년 1월 25일 인쇄

1982년 1월 31일 발행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조 현 명
편집부장 / 이 형 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 교회

1000-□□

서울특별시 성구 충무로 5가 36

전화, 260-3407 · 3408

1982년도

총현교회 당회원



당회장/김 창 인



서 기/윤 중 순



부서기/이 태 규



한 명 옥



조 현 명



김 한 홀



송 순 일



김 기 성



윤 중 성



임 광 식



최 석 주



이 동 규



황 창 룡



박 창 수



이 응 선



윤 용 규



홍 중 섭



한 경 일



정 석 태



최 성 림



김 영 삼



이 원 절



윤 명 식



김 의 절



조 선 근



김 은 호



오 태 희



김 영 개



김 방 진



강 순 용



마 성 락



김 차 생



신 현 상



고 병 옥



우 기 전



김 경 철



손 동 운



노 광 현



이 창 업



김 원 선



오 진 국



박 지 민



정 하 우



이 병 학